

직업적 트라우마
전문상담센터



07

JULY 2018
vol.347

안전보건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



Safenology

안전보건공단,
질식재해 Zero에 도전한다

Contents

SPECIAL THEME

SAFENOLOGY

—
‘산재사망사고 절반으로 줄이기’
안전보건공단이 앞장섭니다!

Special Theme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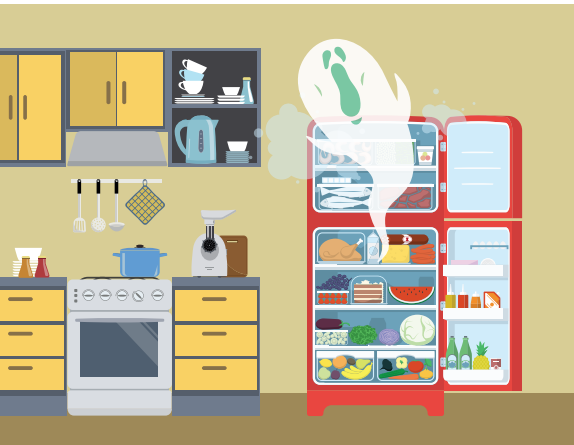
안전보건공단, 질식재해 Zero에 도전한다

한 번의 호흡만으로도 사망으로 이어지는 질식재해는 연간 19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에 질식 3대 위험영역을 중심으로 한 안전보건공단의 해결책을 알아본다.

Special Theme II

이상고온, 열 받은 대한민국

30도 이상의 불볕더위가 계속되는 여름은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더 없이 고통스러운 계절이다. 이글이글 타는 듯한 폭염 속 건강보호대책을 알아본다.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 18 365안전지대**
언제나 안심, 언제나 안전
에스원 바이크스쿨
- 24 중대재해사례 1**
벽체 해체작업 중 발생한 사망사고
- 28 중대재해사례 2**
스프링클러 보수작업 중 발생한 사망사고
- 32 중대재해사례 3**
주차타워 안에서 이동 중 발생한 사망사고
- 36 현장에서 만난 사람**
알뜰살뜰 다친 마음 돌보는 마음치료사
양선희 부센터장 & 김미연 심리상담사
- 42 모두의 건강주치의**
수영 잘하니깐 괜찮아?
여름철 물놀이, 안전요원도 조심한다
- 46 당신을 응원합니다**
자존감 하락과 슬럼프,
네가 대체 뭐길래 날 이렇게 힘들게 하니
- 50 글로벌 파트너**
통로에 있는 물건,
생명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 52 기인물 연구소**
목재가공용 등근톱

생활 속 안전문화

- 58 안전의 참견**
여름철 고온작업 건강관리
- 62 Focus on KOSHA**
제51회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
- 66 미디어 보물창고**
- 68 함께해요 안전보건**
안전보건자료 이렇게 활용하세요
- 70 씬(SCENE)스틸러**
잊히지 않는 끔찍한 기억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 72 생각을 키우는 책**
책 읽기 딱 좋은! 여름은 그런 계절
- 74 리더의 유머력**
뭘 좀 아는, 트렌디한 리더
- 76 안전UP 희망UP**
- 78 KOSHA News**
- 84 독자마당**
- 87 응급처치 119**

안전보건 2018년 7월호 제30권 제7호(통권 347호)
발행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발행인 박두용
기획편집 교육미디어실
편집위원 김무영, 남해승, 김인성, 정종득, 박상복,
양상철, 홍순의, 김태호, 김승환
담당 하신영(eoqkr@kosha.or.kr) 052-703-0697
주소 울산광역시 중구 중가로 400
제작·편집디자인 큐라인 02-2279-2209
인쇄 (주)연각피앤디
홈페이지 www.kosha.or.kr

* 월간 <안전보건>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실린 사진과 삽화,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연중기획②

산재사망사고 없는 안전한 일터 만들기: 질식

안전보건공단, 질식재해 Zero에 도전한다

ZERO

사망에 이르는 비율이 일반사고(1.2%)에 비해 40배가량 높은 질식재해. 한 번의 호흡만으로도 사망으로 이어지는 질식재해는 연간 19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키고 있다. 주된 사망발생 장소는 폐수처리장, 맨홀, 콘크리트 양생, 양돈농가 분뇨처리장 등이다. 이에 안전보건공단은 질식사고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나섰다. 질식 3대 위험영역을 중심으로 한 안전보건공단의 해결책을 알아본다.

글 편집실

여름철 불청객,
질식사고 주의보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2017년) 발생한 질식재해자 177명 가운데 52.5%인 93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폐수처리장 및 맨홀에서 발생한 사망자수는 24명으로 전체의 25.8%를 차지했고, 겨울철 콘크리트 양생 등의 건축현장에서는 12명(13%), 양돈농가 분뇨처리장에서는 8명(8.6%)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질식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것은 5월~8월 사이 정화조나 맨홀 등 밀폐공간에 대한 정비가 많아지는 것에서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이에 안전보건공단은 한 번의 호흡만으로도 사망에 이르게 하는 황화수소와 위험을 감지하기 어려운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질식사고를 줄이고자, 질식사고 3대 위험영역인 '지자체(맨홀, 하수처리조)와 양돈농가, 건설현장'을 집중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위험영역 대상별 관리 체계도

위험영역	지방자치단체	양돈농가	건설현장
핵심타겟	맨홀, 하수처리조	분뇨처리	콘크리트 양생(동절기)
사망인자	황화수소(H ₂ S)	황화수소(H ₂ S)	일산화탄소(CO)
대상	하수·분뇨처리장(4,000개소) 맨홀 보수 작업(55,000개)	양돈농가(4,500개소)	3억~120억 현장 (70,000개소)
협업기관	지자체·공기업(약 300개)	농가 사업주/ 대한한돈협회	한국레미콘공업협회 민간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질식재해의 온상,

맨홀·하수처리조

인체에 치명적인 황화수소는 한 번의 호흡만으로도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황화수소는 악취를 가진 무색의 유독한 기체로, 주로 지하 맨홀이나 분뇨탱크, 폐수 또는 하수처리설비 등 밀폐공간에서 발생된다.

이는 습도와 온도, 유기물의 영양분 등에 의해 밀폐공간에서의 미생물 번식이 쉽기 때문인데, 특히 분뇨나 고농도 유기물의 폐수 등은 미생물의 번식 속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이산화탄소, 황화수소, 메탄가스 등 고농도의 질식가스를 만드는 주요 원인이 된다. 따라서 질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는 적정환 공기(산소 18%이상·23.5%미만, 탄산가스 1.5%미만, 일산화탄소 30ppm 미만, 황화수소 10ppm 미만 수준)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안전보건공단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하수도 정비공사 및 공공하수처리장의 오폐수처리시설에서 질식사고가 다수 발생한다는 것에 착안, 지자체(맨홀, 하수관 보수 공사)를 3대 위험영역 중 하나로 선정하여 집중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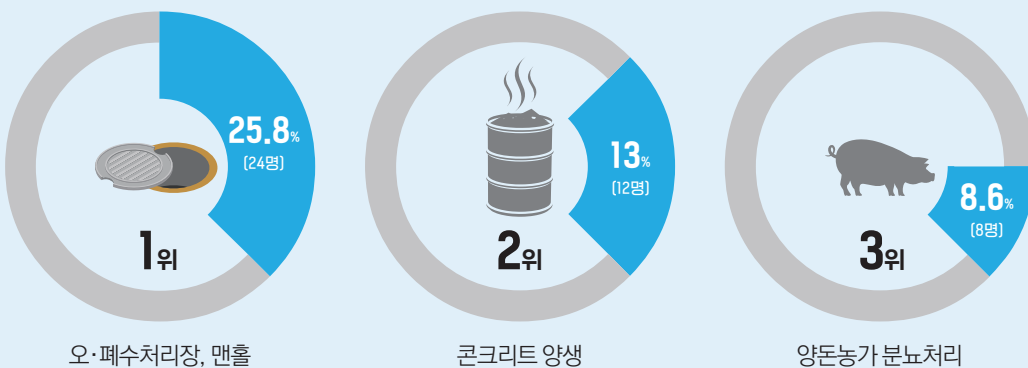
이를 위해 안전보건공단은 우선 전국 245개 지자체별 하수 및 분뇨처리시설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물론, 환경부 하수도 통계자료를 통해 4,000개소

사업장 리스트를 확보한다.

또, 올해 지자체 발주 공사 중 맨홀, 하수관 보수 공사 현황을 집중적으로 파악하고,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건설업체 정보조회망(KISCON)을 활용해 매월 실시간으로 공사현장을 확보할 방침이다. 확보된 사업장을 대상으로는 올해 안에 ‘한국형 질식위험 경고 설비’를 개발해 2019년부터는 각 지자체가 보유한 맨홀 내에 부착한다. 산재 예방을 위해 기술·자금 등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클린사업도 적극 전개한다. 클린사업은 사고위험이 높은 5인 미만 사업장이나 공사금액 20억 원 미만 현장에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시스템 구축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설비투자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구체적으로 외부의 신선한 공기를 내부로 유입하는 장치인 급기팬의 보유율을 직영시설의 경우 현재 4.6%에서 2022년까지 50%로, 위탁시설의 경우 45.8%에서 90%로 각각 높인다는 목표다. 이와 동시에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우선 지자체 하수처리시설 질식예방작업 표준을 안전보건기술 지침에 개정 반영할 계획으로, 지자체·공공기관의 평가항목에 질식 사망예방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공공분야 안전관리 시스템 정착을 도모할 방침이다. 또한, 지자체용 안전보건관리 표준계약서를 도입해 예방관리체계도 마련한다.

5년간 장소별 사망자 발생 순위('13년~'17년)



황화수소(H₂S) 농도에 따른 생리적 반응

* 출처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산소 농도와 유해가스 등 작업환경이 생체 및 운동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

농도 (ppm)	생리적 반응
0.008~0.03	냄새 감지
10	뚜렷하게 불쾌한 냄새
25~30	강한 냄새, 그러나 견딜 수 있을 정도
50	결막에 자극 증상을 느낌
100	3~15분 내에 후각 소실, 눈과 목에 찌르는 듯한 증상
150	후각신경 마비
250	장시간 노출되면 폐부종 유발
500	1시간 이내에 흥분, 두통, 현기증, 의식상실, 호흡부전 등 전신 증상 발생
700	곧 의식장애가 나타나고 응급구조 조치가 없으면 사망에 이름
1,000~2,000	호흡중추가 마비되어 호흡정지로 사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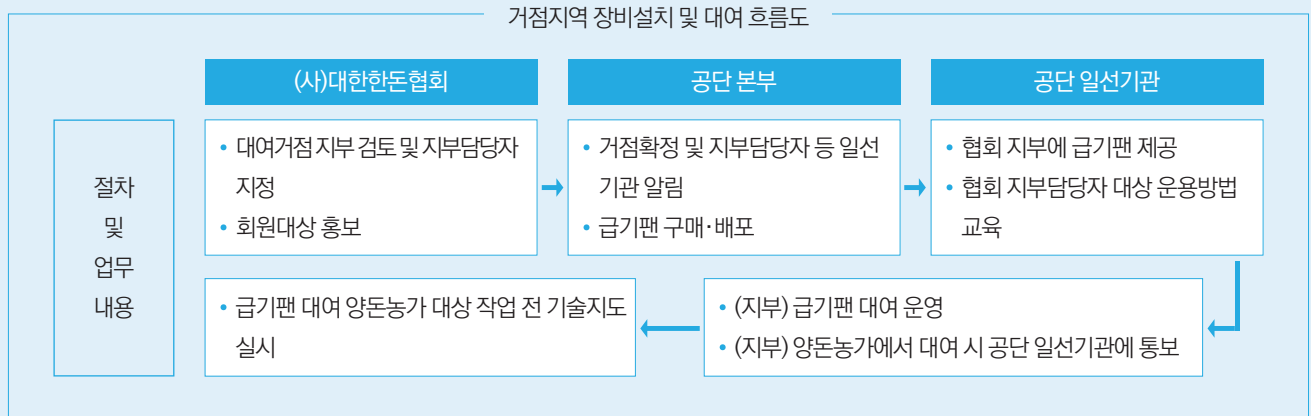
체계적인 예방 시스템 도입되는

양돈농가

질식사고는 양돈농가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주로 정화조의 돈분을 제거하거나 청소하는 작업 중 황화수소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한데, 특히 규모가 작은 양돈농가의 경우 직원교육이나 각종 위험표지판 마련이 불충분한 경우가 많아 지속적으로 질식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안전보건공단은 양돈농가 사업주와 분뇨처리 작업자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관리에 들어간다. 우선 지역별·규모별 산업재해보험 가입농가 1,038개소의 리스트를 확보하고, 대규모 분뇨처리시설을 보유한 농가들의 클린사업 참여를 도모하여 보다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할 방침이다. 소규모 양돈농가에 대한 대책도 동반된다. 산업재해보험 미가입 농가 3,500개소에 대한 현황을 대한한돈협회, 지방자치단체, 농림부 등록 자료를 통해 추가로 파악하여, 이들 소규모 분뇨처리 작업 예정 농가들에게 예방장비 키트를 대여해 줄 방침인 것! 예방장비 키트에는 급기팬, 가스농도 측정기, 위험 경고표지 등이 담겨있으며, 특히 위험 경고표지에는 사용방법에 대한 실무가이드를 보급하여 실질적 사용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예방장비 키트는 양돈농가 밀집 15개 거점 지역에 설치하여 상시 대여할 예정으로, 안전보건공단은 한돈협회 지부별 책임자를 지정하여 장비 관리 및 사용지도를 원활하게 할 방침이다. 또한, 축산업 허가제 교육 시 질식사고 예방교육 시간도 배정된다. 안전보건공단은 질식사고 위험성을 인지시키고, 노동자 교육 실시 등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방침으로, 특히 양돈농가에서 근무하는 약 7,500명의 외국노동자를 위해 13개 국어(중국, 캄보디아, 네팔, 미얀마, 태국, 베트남, 필리핀,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몽골, 파키스탄,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2018년 기준)로 번역된 안전보건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할 예정이다.

예방 콘텐츠 개발·보급





“

질식 3대 위험영역을 집중 관리함으로써
매년 20%의 사망자 수 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는 안전보건공단. 다방면으로 힘쓰고
있는 안전보건공단의 힘찬 발걸음을
주목해 봐도 좋을 것 같다.

”

겨울철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질식,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한 공단의 노력

황화수소처럼 냄새가 나는 유독성가스에 의한 질식사고와 달리 무색·무취의 가스에 의한 질식사고도 심심찮게 일어난다. 질소 가스나 아르곤,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등이 그러한 경우인데, 실제로 대부분의 산소결핍에 의한 사망사고는 질소 가스,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등처럼 무색·무취의 가스에 의해 발생하는 사례가 훨씬 더 많았다. 무색·무취의 가스들은 독성의 유무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안전불감증으로 이어지기 쉬운데, 특히 겨울철 콘크리트 양생 작업현장이 그렇다. 콘크리트 양생이란 콘크리트 타설 후 일광·풍우 등으로부터 콘크리트의 노출면을 보호하기 위해 충분한 습도와 적당한 온도를 주는 작업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겨울철에는 콘크리트 양생을 위해 갈탄난로 등을 사용하는데, 밀폐된 공간에서의 연소 작용은 일산화탄소 등의 유해가스를 발생시키지만, 현장에 있는 노동자가 무색·무취의 일산화탄소를 감지하기란 쉽지 않다. 결국 현장에 있는 노동자는 밀폐공간에 체류하기 시작한 고농도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해 사망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안전보건공단은 건설현장의 질식재해를 막고자 3억~120억 건설현장의 연간 작업 일정과 공정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중이다. 건설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현장 방문 시 비계 설치 여부와 함께 파악하고 있는 중으로, 오는 9월까지 현황파악을 마친 후 7만 개소의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질식사고를 막기 위한 대대적인 예방 시스템을 구축한다.

안전보건공단은 우선 건설현장 산업안전관리비 집행 등을 통해 안전장치 보유 확대를 유도할 방침으로, 신규 착공현장 사업주 교육 시 질식재해 예방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100대 건설협의회, 안전보건관리자 협의회 등을 활용하여 동절기 양생작업 계획이 있는 건설현장에 질식위험 경보발령 및 재해사례를 집중 배포할 예정이다.

예방 콘텐츠 개발에도 힘쓴다. 작업 전 급기시간 및 방법 등에 관한 '작업표준 실무 가이드'와 '맞춤형 1분 동영상'을 제작·보급할 예정인 것인데, 여기에는 콘크리트 타설 시기 및 갈탄·목탄·연탄 사용 시 주의사항 등처럼 실용적인 내용들이 담겨진다.

한편, 건설현장 양생작업은 물론 캠핑 시에도 널리 사용되는 성형탄(숯) 제품에 대해서도 '일산화탄소 중독위험 경고표지 부착의무 조항 신설'을 추진하는 등 제도개선도 이루어진다.

질식 3대 위험영역을 집중 관리함으로써 매년 20%의 사망자 수 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는 안전보건공단. 다방면으로 힘쓰고 있는 안전보건공단의 힘찬 발걸음을 주목해 봐도 좋을 것 같다.

질식 3대 위험영역별 위험도 평가 수행내용

구분	지방자치단체	양돈농가	건설현장
대상	지자체 담당자 위탁 및 발주공사 사업주	양돈농가사업주 분뇨처리 작업자	공사 현장소장 및 감독자 (겨울철 갈탄사용 콘크리트 양생작업)
수행 방법	지자체 협업(MOU) 직접 및 간접수행	양돈협회 협업 직접 및 간접수행	지자체 협업(MOU) 직접 및 간접수행
평가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질식사고 위험성 인지도 ② 위험관리방법 인지도 ③ 계약 시 안전보건 조항 명시 ④ 안전보건감독 ⑤ 가스측정기 보유 및 제공 ⑥ 급기팬 보유 및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질식사고 위험성 인지도 ② 위험관리방법 인지도 ③ 사업주 교육이수 ④ 가스측정기 보유 ⑤ 급기팬 보유 ⑥ 재정지원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질식사고 위험성 인지도 ② 위험관리방법 인지도 ③ 양생작업 매뉴얼 작성 ④ 가스농도 측정기 보유 ⑤ 열풍기 보유

TIP

환기팬 등 질식재해예방 장비가 없다면,
안전보건공단을 찾으세요!

안전보건공단은 질식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산소·유해 가스 농도 측정장비, 환기팬, 송기마스크, 공기호흡기, 구조용 삼각대 등을 무상으로 대여해 드리고 있습니다.

- 1 홈페이지(www.kosha.or.kr) 접속
- 2 사업안내/신청
- 3 직업건강 - 질식재해예방 장비대여 신청
- 4 관할구역 선택
- 5 담당자 유선연락 및 방문 수령



질식 3대 위험영역 집중관리

현황

- 질식사고는 사망에 이르는 비율*이 일반사고(1.2% 내외)에 비해 40배 높은 치명적인 사고로 연평균 19명의 사망자가 발생
 - * 최근 5년간 발생한 질식재해자 177명 중 93명(52.5%)이 사망
- 사망발생 장소는 폐수처리장·맨홀(25.8%, 24명), 겨울철 콘크리트 양생(13%, 12명), 양돈농가 분뇨처리(8.6%, 8명)에서 다수 발생('13년~'17년)

추진전략

중점 추진 과제

① 실태조사·분석

- 질식 3대 위험영역 위험실태 조사·분석

② 위험도 평가 및 관리

- 위험도 평가 및 DB 구축
- 위험작업 모니터링 및 고위험군 관리

③ 현장 내재화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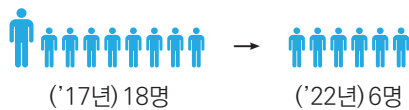
- 사망예방 설비개발 및 예방장비 보유·사용 지원
- 질식사망 예방교육(사례전파) 및 예방 콘텐츠 개발·보급

④ 제도개선 지원

- 안전보건기술지침 개정
- 지자체 및 공공기관 질식사망 예방 제도개선 추진
- 갈탄, 성형탄 등 제품 중독위험 경고표지 부착의무 추진

성과지표

- 질식 사망자 수 매년 20% 감소



- 성과관리

- 급기설비 보급률 매년 10%p 확대
- 질식위험 사업주 인지도 매년 20% 향상

기대효과

- 질식사망사고 예방에 대한 전국민 인식제고와 실천력 향상

이상고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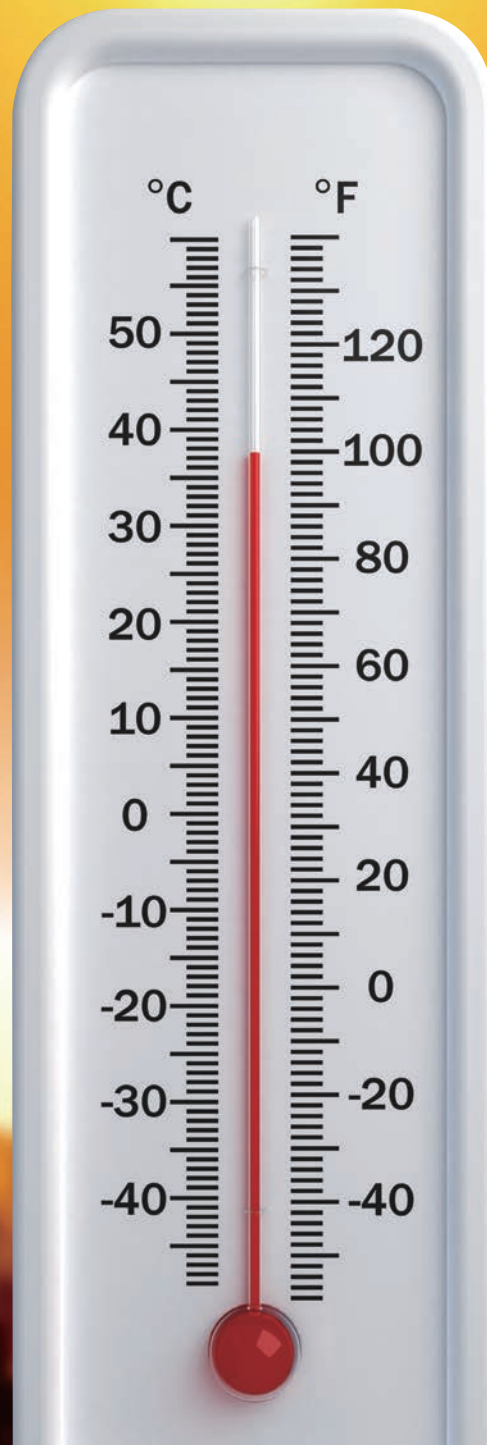
열 받은 대한민국

1,574^명

2017년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 수

11^명

2017년
폭염에 의한
사망자 수



31.2%

전체 온열질환자 중
491명(31.2%)이
실외 작업장에서 발생

12~17^시

폭염주의보 경보 발령 시
야외활동을 피해야 하는 시간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노동자는 땀 뻘뻘 어질어질 시름시름

올여름도 30℃ 이상의 불볕더위가 계속될 예정이다. 자연현상을 거스를 순 없겠지만,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여름은 더없이 고통스러운 계절!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온의 상승과 엘니뇨현상 등으로 올해 역시 이글이글 타는 듯한 폭염은 계속될 전망이다 만큼, 폭염대비 건강보호대책을 알아두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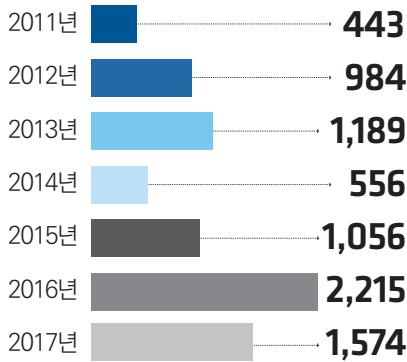
글 편집실 | 참고자료 안전보건공단 「하절기 폭염대비 직업건강 가이드라인」, 고용노동부 「2018년 폭염대비 노동자 건강보호대책」 | 그림 김수민

2011~2017년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

(단위 : 명)

*출처 : 질병관리본부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신고현황 연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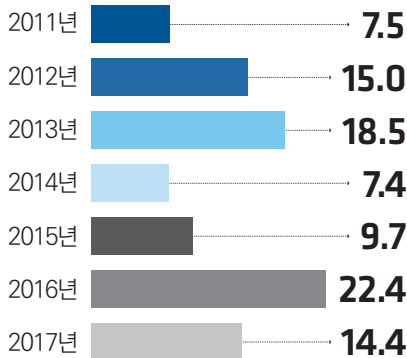


연도별 평균 폭염일수

(단위 : 일)

*출처 : 질병관리본부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신고현황 연보」



대한민국, 왜 갈수록 뜨거울까

폭염이란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심한 더위를 말하는 것으로, 국가 및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통상 30℃ 이상의 불볕더위가 계속되는 현상을 가르킨다. 매년 기록적인 살인 더위가 계속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주범은 온실가스다.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CO₂), 메탄(CH₄), 아산화질소(N₂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₆) 등 크게 6가지 종류로 나누어지는데, 이 중 이산화탄소(CO₂)는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77%를 차지하는 등 폭염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산화탄소는 모두가 아다시피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거나 공장에서 물건을 생산할 때, 그리고 석유와 석탄 등과 같은 화석연료를 사용할 때, 건물 냉난방 등을 할 때 발생한다. 최근에는 무분별한 산림 벌채가 이산화탄소의 증가속도를 높이고 있는 추세이다. 이산화탄소를 중심으로 한 온실가스의 증가가 계속된다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와 관련해 세계보건기구(WHO)는 온실가스의 증가 추세가 지금처럼 이어진다면 폭염 현상은 2020년에는 두 배, 2040년에는 네 배 이상 발생할 것이라며 비정상적인 기상 이변은 앞으로도 점차 심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폭염은 단순히 날씨가 뜨거워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인체에 크고 작은 문제들을 일으킨다. 특히 야외작업장 노동자들의 경우 인체의 체온조절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온열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5년간 건설업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36명으로, 전체 온열질환자의 5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 경비 등 실외작업 빈도가 높은 직종에서도 14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해 전체의 23%를 차지했다.

폭염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나타나는 건강장애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열실신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초기단계에 이를 인지하고 대처하지 않으면 치명적인 상태로 빠르게 진행할 수 있으므로 폭염 속에서 작업을 실시하는 사업주와 노동자들은 반드시 온열질환에 대한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

온열질환의 종류와 증상

온열질환	증상
열사병	체온조절기능의 장애로 현기증, 두통, 경련 등이 발생한다. 체온이 41℃ 이상 상승할 수 있으며, 신속한 치료가 없을 경우 사망률이 매우 높다.
열탈진	땀을 많이 흘려 염분과 수분손실이 많을 때 발생하는 온열질환이다. 심한 갈증, 피로감, 현기증, 식욕감퇴, 두통, 구역, 구토, 피로감 등이 주요 증상으로, 열사병과는 달리 체온은 정상이거나 약간 상승하는 정도다. 일반적으로 38.9℃를 넘는 경우는 드물다.
열경련	폭염 상태에서 심한 육체활동을 했을 때 근육에 통증이 있는 경련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보통 땀을 많이 흘린 후 물만 마셨을 때 염분이 부족해서 발생한다.
열실신	실신(일시적 의식소실) 또는 어지럼증이 발생한다.
열발진	목, 가슴 상부, 서혜부, 유방 밑, 팔꿈치 안쪽 등에 다발성 붉은 염증 또는 소수포가 발생한다.
열성부종	발이나 발목에 부종이 생긴다.

폭염, 노동자의 건강을 위협하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7년까지 가장 많은 온열질환자가 발생한 실외 장소는 작업장, 논·밭 순으로 각각 38.9%, 20.7%를 차지했다. 이는 전체 온열질환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수준으로, 폭염 속에서 적당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야외작업장 노동자들의 현실을 반증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안전보건규칙에 '폭염 시 휴식, 그늘진 장소의 제공 조항'을 신설하고, 건설업, 조선업 등 실외작업이 주로 이뤄지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온열질환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온열질환 예방 3대 기본수칙은 '물, 그늘, 휴식'이다.

이에 따라 폭염으로부터 노동자의 건강장해가 위협에 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주는 ①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노동자들이 규칙적으로 마실 수 있도록 수시로 제공해야 하고, ② 햇볕을 완벽히 가려주는 그늘진 장소를 마련해야 하며, ③ 폭염특보 발령 시 1시간 주기로 10~15분 이상씩 규칙적으로 휴식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당뇨병, 낭포성섬유증 및 갑상선 기능항진증 등 개인질환이 있는 자 또는 고령자 등처럼 폭염에 노출되었을 경우 건강 영향을 받기 쉬운 노동자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만일에 대비해 작업제한을 통보하거나 건강이상자에 대한 신속한 보고 등을 위해 연락망을 구축하거나 정비하는 노력도 중요하다.

기온이 31℃가 넘어가는 폭염예비단계가 발표되면 사업주는 노동자에게 관련 사실 및 조치사항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예비단계'란 기상청 폭염 영향예보 단계 중 하나로써 31℃ 이상이 3일 이상 지속 예상될 때 발표되는데, 이럴 때에는 평소보다 휴식 시간을 더 자주, 길게 갖도록 조치하고, 특히 중량물 옮기기, 삽 또는 톱을 이용한 작업 등과 같은 에너지 소비가 많은 중작업 수행 노동자 등에 대해서는 휴식시간을 추가로 배정해야 한다. 작업자들끼리 짝을 지어 상대방의 이상징후를 모니터링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기온이 33℃ 이상인 주의보 단계와 35℃ 이상인 경보 단계에서는 앞선 사례보다 휴식시간을 조금 더 자주, 길게 제공해야 하며, 특히 가장 더운 시간대인 2~5시 사이 작업을 줄이도록 조치하는 것이 건강하게 폭염을 나는 지름길이다.

2011~2017년 온열질환자 발생장소(단위: 건)

*출처: 질병관리본부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신고현황 연보」

실내 총 313						
집	건물	작업장	비닐 하우스	기타		
113	40	90	27	43		
실외 총 1,261						
작업장	운동장 (공원)	논/밭	산/강가/해변	길가	주거지 주변	기타
491	95	262	74	153	67	119

기상청에서는 사람이 실제 느끼는 더위수준을 지수화한 '더위체감지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위체감지수*를 통해서도 폭염에 대한 건강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분류등급	보통	높음	매우높음	위험
더위체감지수	21℃이상 ~ 25℃미만	25℃이상 ~ 28℃미만	28℃이상 ~ 30℃미만	31℃이상

*더위체감지수는 온도, 습도, 풍속 등을 고려한 지수이며, 단순 기온이 아님에 유의

- 기상청 날씨누리(www.weather.go.kr) 생활과 산업 ▶ 생활기상정보 ▶ 더위체감지수(5~9월 서비스, 매일 6시, 18시 제공)
- 생활기상정보 문자서비스(https://lifsms.kma.go.kr)에 가입하면 기상정보를 편리하게 문자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온열질환 예방의 지름길

극심한 더위는 열사병과 열탈진 등을 일으키고,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될 경우 사망까지 초래한다. 또한 고혈압, 심장병, 뇌졸중과 같은 뇌심혈관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증상을 악화시키기도 한다. 폭염에 의한 피해를 줄이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은 '기본수칙'을 지키는 것이다. 무더위 관련 지역기상예보를 주의 깊게 듣고, 수분을 자주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시원한 여름나기가 가능하다.



온열질환 예방 3대 기본수칙 명심하기

▶ 물: 노동자가 규칙적으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시원하고 깨끗한 물이 상시 제공되어야 한다.

▶ 그늘: 노동자가 일하는 장소에서 가까운 곳에 그늘진 장소를 마련하고, 그늘막이나 차양막은 햇볕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 시원한 바람이 통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하며, 그늘진 장소는 쉬고자 하는 노동자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의자나 돛자리, 음료수대 등 적절한 비품을 비치하고, 소음·낙하물, 차량통행 등 위험이 없는 안전한 장소여야 한다.

▶ 휴식: 폭염특보 발령 시 1시간 주기로 10~15분 이상씩 규칙적으로 휴식할 수 있어야 한다. 특보 종류에 따라 휴식시간을 늘려야 한다.

예를 들어 폭염주의보(33℃) 발령 시에는 매 시간당 10분씩, 폭염경보(35℃) 발령 시에는 15분씩 휴식하도록 한다. 같은 온도 조건이라도 습도가 높은 경우에는 땀 증발이 되지 않아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기 때문에 휴식시간을 더 늘려야 한다.

열 노출을 최소화하는 작업일정 짜기

육체노동은 하루 중 가장 시원한 시간대에 하도록 작업일정을 계획한다. 작업을 순환시키거나 노동자를 추가로 배치하여 작업반 각 구성원의 열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당일의 가장 더운 시간에는 작업속도를 늦추거나 중단하고, 가능한 경우 직사광선이나 복사열원에서 먼 곳으로 작업을 옮기거나 재배치하는 것이 좋다.

매일 기온 체크하기

사업주는 업무가 시작되기 전 날씨앱 또는 비치되어 있는 온도계를 확인해야 한다. 노동자의 작업계획서를 확인해야 하며, 실외작업이 많은 경우에는 충분한 휴식시간을 갖도록 조치하자. 또, 노동자들이 열사병 증상을 보이지 않는지 자주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며, 실내외 온도차가 5℃ 이상 차이 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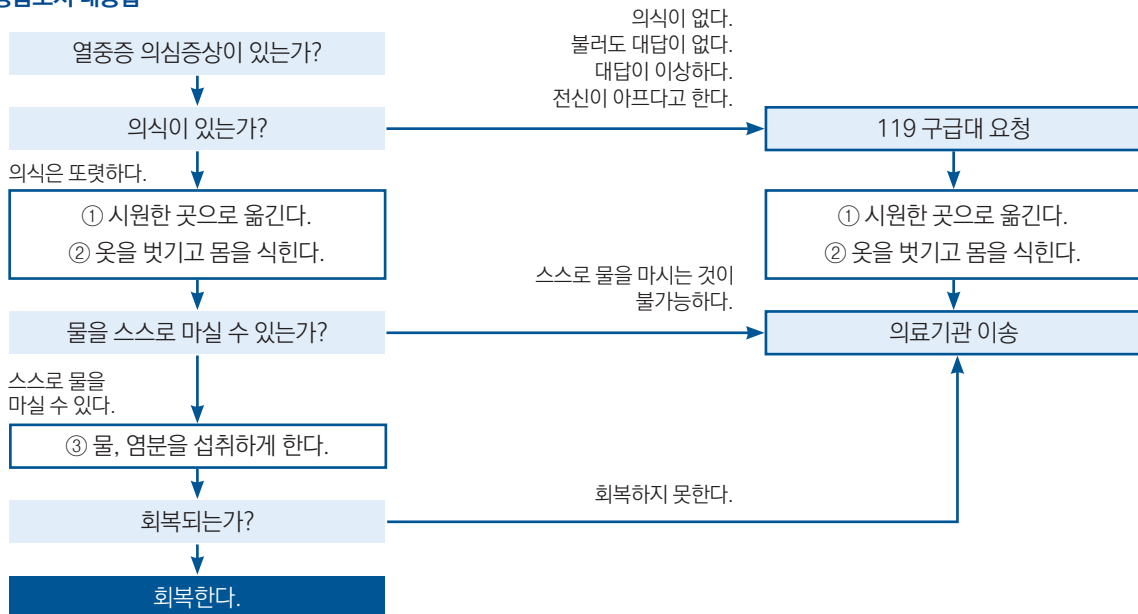
폭염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위한 건강평가 체크리스트

*출처 : 안전보건공단 「하절기 폭염대비 직업건강 가이드라인」

문항	전혀 느껴본 적 없다	아주 가끔 느낀다	가끔 느낀다	자주 느낀다	매우 자주 느낀다	항상 느낀다
	0점	1점	2점	3점	4점	5점
머리가 멍롱하다						
머리가 아프다						
머리가 핑 돈다						
쓰러질 것 같다						
섬세한 손동작이 제대로 안 된다						
호흡이 가쁘다						
숨쉬기가 어렵다						
심장박동이 빨라진다						
근육에 경련이 생긴다						
가슴에 조이는 통증이 생긴다						
기운이 없다						
변비가 생긴다						
더위를 느낀다						
발이 축축하다						
신체 일부가 저리다						
시야가 흐리다						
식욕이 없다						
병이 생긴 것 같다						
목이 마르다						
피곤하다						
신경질적이다						
기운이 없다						

** 전체 항목 당 점수 총합이 40점 이상이면 고온 환경으로 노동자의 건강이 위협 받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단, 순환기계, 호흡기계, 위장관계, 근골격계와 관련된 기존 질환을 고려해 판단하세요.

열사병 응급조치 대응법





적당한 휴식, 안전한 일터의 기본입니다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하는 7월은 적절한 휴식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는 시기입니다. 더위로 인한 각종 건강장해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자칫 잘못하다간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주는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그늘진 장소를 마련하고, 작업자들은 수시로 물을 섭취해야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언제나 안심, 언제나 안전

에스원 바이크스쿨



‘언제나 안심’. 에스원 출동요원들의 오토바이에 새겨져 있는 이 문구는 고객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직원들의 안전한 일상도 여기에 포함돼 있다. 이런 이유로 에스원은 인재개발원 한편에 바이크스쿨을 마련했다. 바이크 출동요원들이 ‘언제나 안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공간이다.

글 강진우 | 사진 안용길(도트 스튜디오)



전사적 지원으로 마련된 ‘오토바이 전문 교육기관’

오토바이는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운행할 수 있다. 그러나 탑승자를 보호하는 안전장비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안전교육이 다소 미비하기 때문에 사고 빈도와 위험성이 높다.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오토바이 사고는 2005년 5,596건이었던 것이 2015년 12,654건으로 두 배 이상 치솟았다. 또한 사방이 뚫려 있는 오토바이의 특성상 사고가 발생하면 운행자와 동승자, 상대방에게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과는 달리 국내에는 오토바이 교육기관이 턱없이 부족해 거니와, 공터에 러버콘(고깔 모양의 안전유도시설)을 S, Z자 모양으로 깔아 놓은 정도다.

전국에 걸쳐 출동요원 2,000여 명, 출동 바이크 380대가 포진돼 있는 국내 1위 보안기업 에스원의 오토바이 교육시설도 얼마 전까지는 이와 다르지 않았다. 지난 2001년부터 꾸준히 오토바이 탑승 교육을 해왔지만 여러모로 부족했다. 그도 그럴 것이 국내에는 벤치마킹할 오토바이 교육기관이 전무하다시피 했고, 라이딩 안전 문화도 제대로 정착돼 있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안전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점점 높아졌고, 에스원도 이러한 흐름에 기꺼이 동참했다. 에스원 바이크스쿨도 전사적으로 안전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던 중 만들어진 값진 결과물. 바이크스쿨 조성 전반을 책임진 에스원 인재개발원 교육운영 그룹 전건 차장은 “안전을 무엇보다 중요시하는 경영진의 전폭적인 지원이 오늘날의 바이크스쿨을 탄생시켰다”며 입술을 뻗었다.

“2016년 가을에 ‘제대로 된 오토바이 교육기관을 만들어 보자’는 의견이 나왔고, 육현표 사장님이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셨습니다. 특히 6개월 동안 바이크스쿨 시설 설계 및 커리큘럼 기획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점이 가장 인상 깊습니다. 덕분에 작년 5월,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시설과 교육 프로그램을 완성할 수 있었죠.”

‘안전’을 교육의 최우선 가치로 삼다

에스원 바이크스쿨은 오토바이 브랜드에서 운영하는 이른바 ‘드라이빙 아카데미’와는 결이 다르다. 드라이빙 아카데미가 라이딩 기술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는 반면, 에스원 바이크스쿨은 철저하게 안전에 방점이 찍혀 있다. 이에 따라 코스도 달리 구성돼 있다. 드라이빙 아카데미는 주로 넓은 공터에서 진행되지만, 에스원 바이크스쿨의 주행코스는 운행 시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상황을 중심으로 꾸며져 있다.



“

2016년 가을에 ‘제대로 된 오토바이 교육기관을 만들어 보자’는 의견이 나왔고, 육현표 사장님이 전폭적으로 지원해주셨습니다. 특히 6개월 동안 바이크스쿨 시설 설계 및 커리큘럼 기획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점이 가장 인상 깊습니다.

”

3,000평에 달하는 에스원 바이크스쿨의 교육장은 실제 도로의 다양한 모습을 그대로 옮겨 놓은 ‘현장코스’와 라이딩 기술을 익힐 수 있는 ‘스킬코스’로 나뉜다. 그중 백미는 단연 현장코스다. 현장코스에는 중앙선·정지선·신호등·인도·건널목·언덕길·회전교차로·골목길·자갈길 등 오토바이 운행 중 마주치는 13개 세부 코스로 구성돼 있다. 스킬코스에서 오토바이 기본 운행을 배운 교육생들은 현장코스로 자리를 옮겨 실전적인 안전교육을 받게 된다. 더불어 현장코스를 감싸며 이어져 있는 일명 ‘외곽길’을 통해 주행 연습도 가능하다.

교육 콘텐츠 및 프로그램, 안전장비도 충실하게 채워져 있다. 상대적으로 사고가 일어나기 쉬운 50개 상황을 선별, 안전을





위한 대처요령을 상세하게 가르치고 있다. 현장에서 실제로 쓰이는 오토바이 20대를 들여오므로써 실전 투입 시 적응에 문제가 없도록 하고 있으며, 무릎 및 팔꿈치보호대·상반신을 보호하는 프로텍터와 교육 전용 안전모를 구비했다. 교육 시 비상상황에 대비해 사내 응급처치팀인 ‘에스원 3119구조대’를 대기시키는 꼼꼼함도 잊지 않았다.

“저희는 오토바이 타는 법부터 가르치지 않습니다. 시동을 끄고 오토바이를 자신의 힘으로 제어하는 연습부터 합니다. 예를 들어 넘어진 오토바이를 세울 때는 마냥 힘을 쓰게 하는 게 아니라 어깨, 허리에 최대한 부담을 덜 주는 방법을 알려 줍니다. 정지 후 다시 주행할 때는 반드시 좌우와 후방을 살피게 하죠. 요컨대 안전요령을 습관화하게끔 교육하는 겁니다.”

오토바이 안전문화 정착에 앞장서다

아무리 교육 기반이 잘 마련돼 있더라도 강사가 준비돼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를 잘 알고 있는 에스원 바이크스쿨은 현장 경험이 풍부한 출동요원 5명을 바이크 전문 강사로 선발했다. 선진적인 바이크 교수법을 익히도록 일본 유명 바이크스쿨에서 지도자 양성과정 수료생 지원했고, 바이크 교육 노하우를 담은 강사용 교재 「바이크 이론 및 실습 운영안」도 출간했다.

한편 오토바이를 많이 운영하는 지사를 중심으로 사내 강사 20명을 양성, 현장에서 안전지도 및 노하우 전수가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개인별 맞춤형 교육을 위해 한 기수 최대 정원도 30명으로 제한했다.

“지금까지 신입사원 600여 명이 바이크스쿨에서 교육을 받았는데요. 평가가 제법 좋습니다.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데 이렇게 신경 써야 할 게 많은지 몰랐다’며 열정적으로 배우고, 이를 그대로 현장에서 실천합니다. 그래서인지 바이크스쿨에서 교육받은 직원들은 지금까지 오토바이 사고를 단 한 건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안전운전이 습관화되어 있다는 뜻이죠.”

에스원 바이크스쿨은 올해 상반기부터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외부 단체의 교육에도 나서고 있다. 우정사업본부와 협의해, 지난 2월부터 두 달 동안 420여 명의 우정공무원을 가르쳤다. 배달업체, 경찰, 군인 등 각계각층의 교육 문의도 줄곧 이어지고 있다. 에스원 바이크스쿨은 앞으로 외부 기관 직원들, 오토바이 안전 교육을 받고 싶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교육 참여의 문을 서서히 넓혀나갈 계획이다. 직원들의 안전운행을 넘어, 대한민국에 올바른 오토바이 안전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앞장서고 있는 에스원 바이크스쿨. 이들은 오늘도 안전을 향해 열심히 달려 나가고 있다.

MINIINTERVIEW

에스원 바이크스쿨, 이렇게 만들어 갑니다!

현장에서 적용해야 '진짜 안전'이다

안전 교육은 실천적이어야 합니다. 배운 내용을 곧바로 현장에 적용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에스원 바이크스쿨의 모든 요소는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각종 도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대응요령은 기본이고, 인도 주·정차 등 업종 특성상 벌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까지 안전을 기반에 두고 가르칩니다. 현장중심적 안전 교육, 에스원 바이크스쿨의 양보할 수 없는 철학입니다!”

- 인재개발원 교육운영그룹 전건 차장



준비된 강사가 완벽한 교육을 만든다

바이크 전문 강사들은 이론과 경험, 모든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자부합니다. 다년간 현장 경험을 한데다가 에스원 바이크스쿨이 오토바이 문화 선진국인 일본 연수도 전폭적으로 지원해 줬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일반 도로와 똑같은 현장코스까지 더해져 있으니 교육 여건이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우리를 만난 교육생들과 직원들이 앞으로도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완벽한 오토바이 안전 교육'을 제공하겠습니다.

- 인재개발원 교육운영그룹 강공현 강사



안전은 습관이다

전문 강사들이 교육할 때 가장 강조하는 덕목이 바로 '습관화'입니다. 굳이 일부러 떠올리지 않더라도 몸이 즉각적으로 움직이면 안전은 저절로 지켜지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생각을 심어주기 위해 강사들은 끊임없이 안전 사항을 강조하고, 체크하고, 이에 맞춰 움직이게 합니다. 바이크 교육 40시간 동안 이 과정을 끊임없이 되풀이하다 보면, 말미에는 심중팔구 안전행동이 몸에 배어 있죠. '안전은 습관'이라는 신념, 앞으로도 굳건히 지켜 나가겠습니다!

- 인재개발원 교육운영그룹 우현진 강사



안전은 꾸준해야 한다

저는 전문 강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틈틈이 사내 SNS 소통채널 '에스원 두잉두잉'에 '바이크 안전 365'라는 카드뉴스를 만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간과하기 쉬운 사고 상황을 가정하고, 사고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한눈에 보기 쉽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아무리 잘 알고 있다고 해도 안전은 꾸준하게 강조해야 한다는 게 에스원 바이크스쿨 운영진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하는 일에 커다란 자부심을 느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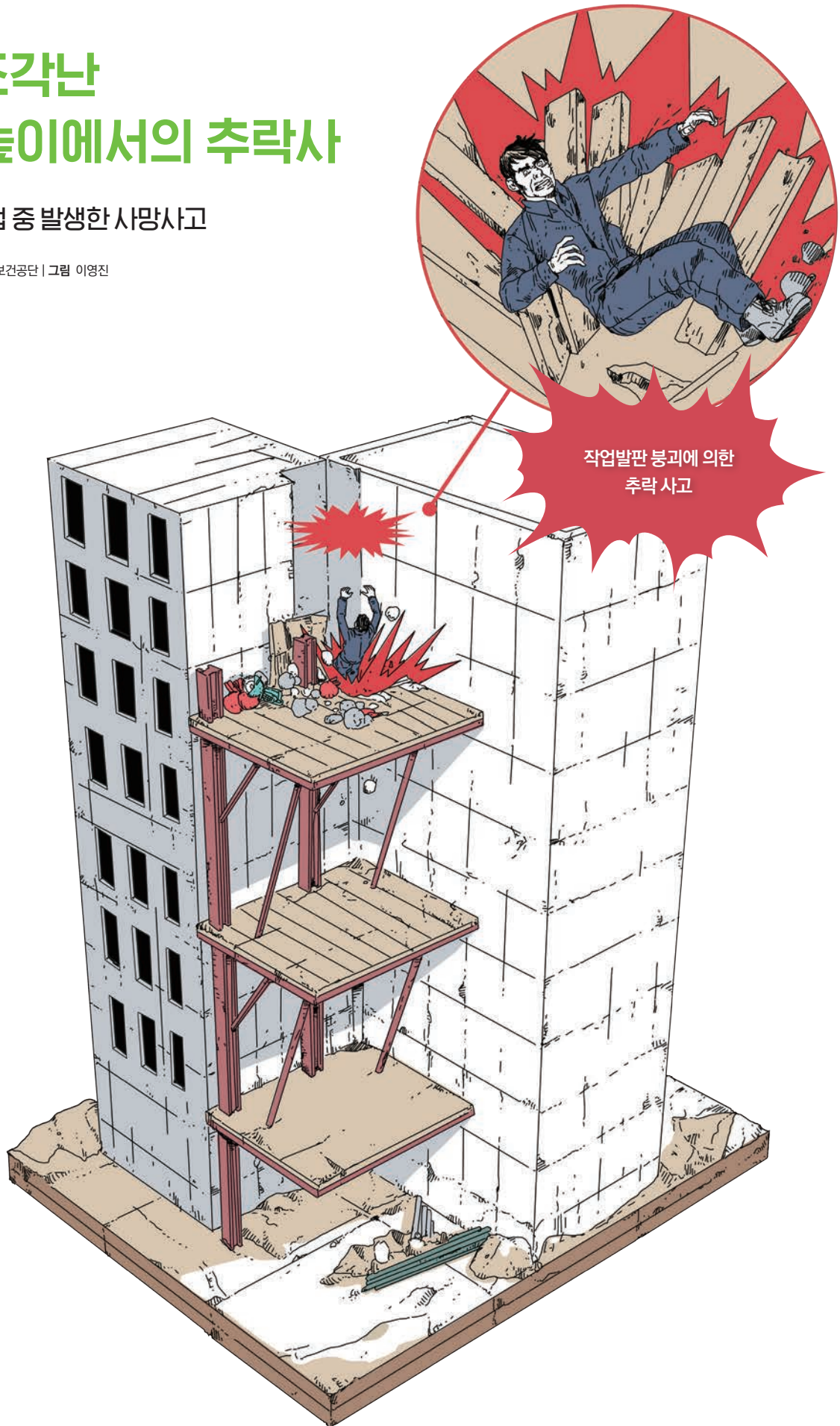
- 인재개발원 교육운영그룹 김정환 강사



삶이 조각난 29층 높이에서의 추락사

벽체 해체작업 중 발생한 사망사고

글 임기현 | 자료제공 안전보건공단 | 그림 이영진



벽체 해체작업 중 발생한 재해 사례

고층 구조물 축조에 있어 작업의 용이성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사용하는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의 일종인 RCS(Rail Climbing System) Form은 부주의한 사용방법이 돌이킬 수 없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사업주는 노동자가 작업발판을 이용하여 작업 시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을 정하고, 허용 하중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작업하도록 해야 한다.

생명을 앗아간 작업발판 위 콘크리트 잔재물

울산에 위치한 한 건설현장.

호텔 1개동과 아파트 4개동 등 복합시설을 신축하는 현장은 아침부터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다. 해체업자 박 씨 역시 바쁘기는 마찬가지.

콘크리트 벽체 해체공사를 위해 일찍부터 RCS(Rail Climbing System : 작업발판일체형 거푸집) 작업발판에 올라간 박 씨는 벌써 1시간째 29층 높이에서 할석작업을 진행 중이었다.

“박 씨, 날도 더운데 천천히 해. 그러다 탈나겠어.”

“오늘 안에 끝내려면 별 수 있나. 차라리 몸이 두 개라면 좋겠다.”

“박 씨는 다 좋은데 일 욕심이 많아서 문제야. 콘크리트 잔재물을 그렇게 다 쌓아두다간 사고 난다고.”

“한두 번 해보나 뭐. 이 정도는 문제없어.”

벽체 해체 후 발생한 콘크리트 잔재물을 작업발판 위에 잔뜩 쌓아둔 박 씨가 못내 걱정되던 김 씨. 하지만 박 씨는 조금만 더 해체작업을 진행한 후, 잔재물을 한꺼번에 치울 생각이었다.

‘아무래도 불안한데...’

조언을 귀담아 듣지 않는 박 씨가 웬지 모르게 불안했던 김 씨. 해체작업과 콘크리트 잔재물 청소를 번갈아 하던 그의 눈에는 김 씨 옆에 수북하게 쌓여져 있는 콘크리트 잔재물이 눈엣가시 처럼 느껴졌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다.

박 씨가 딛고 있던 작업발판이 덜컥 거리더니 순식간에 무너져 버린 것. “으악!” 소리와 함께 지상으로 추락하는 박 씨.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것 말고는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던 김 씨는 큰 충격에 휩싸이고 말았다.

동료의 트라우마로 번진 추락 사고

박 씨의 추락은 29층 작업발판에서 시작됐지만, 작업발판은 28층은 물론 27층까지 연쇄적으로 무너지고 말았다. 해체하여 잔뜩 쌓아둔 콘크리트 잔재물의 하중에 추가로 해체된 콘크리트 잔재물의 무게가 더해지면서 작업발판이 견딜 수 있는 하중이 초과되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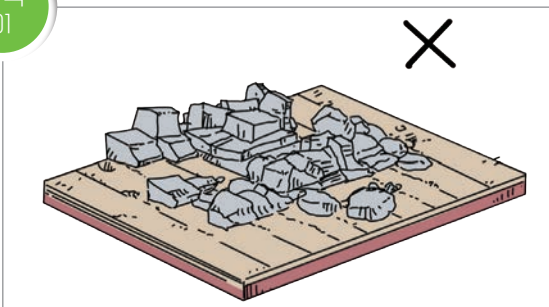
김 씨의 걱정대로 박 씨의 추락사고 원인은 작업발판 위에 과도하게 적치된 콘크리트 잔재물 때문이었다. 해당 건설현장의 작업발판 지지대는 작업하중 350kg으로 설계되었지만, 실제 작업 시 작업발판상 콘크리트 잔재물 적치에 따른 하중은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당시 작업발판에 적치된 콘크리트 잔재물은 약 1톤으로 추정되며, 이는 작업발판 지지대의 허용 모멘트를 상회하여 작업발판이 파단된 것이다.

또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 역시 사고 발생을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해체작업을 하는 경우 해체 건물 등의 구조, 주변상황을 사전조사 하고 해체의 방법 및 해체 순서도면 등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하지만 이를 수행하지 않은 것이다. 더욱이 문제였던 것은 박 씨가 소속된 업체는 비계·구조물 해체공사 시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미등록업체’였음이 밝혀졌다.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추락 사고는 박 씨의 생명을 앗아가고, 김 씨에겐 깊은 트라우마를 남긴 최악의 시나리오였다.

건물 해체작업 중 발생하는 추락 사고 예방책

사업주는 해체작업 시 해체물의 구조·주변상황을 사전조사하고, 해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에 따라 작업하도록 해야 한다.

대책
01



최대 적재하중을 지키세요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발판을 이용하여 작업 시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을 정하고,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해체 작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산물(폐기물)의 처분 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작업발판 상 과적치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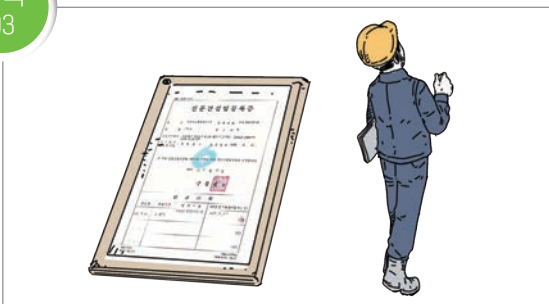
대책
02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세요

해체작업을 하는 경우 해체 건물 등의 구조, 주변상황을 사전조사하고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해체의 방법, 해체 순서 도면 및 해체작업용 기계·기구 등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대책
03



구조물 해체공사는 법령에 따른 등록 업체가 해야 합니다

구조물 해체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등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등록업체가 수행해야 합니다.

등록업체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해체 방법 및 해체 순서 등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반드시 근로자에게 숙지시켜야 합니다.

Step 03

건물 해체작업 중 안전조치 관련 규정

구조물 해체공사 시, 사업주는 근로자가 관리감독자의 지휘에 따라 작업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해체의 방법 및 해체 순서, 해체물의 처분계획 등 작업 계획을 수립하여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등)

[별표1]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			
구분	건설업종	업무내용	건설공사의예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6. 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	…중략… 구조물해체공사: 구조물등을해체 하는 공사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해체공사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 업무 등)

사업주는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작업의 종류	직무 수행 내용
건물 등의 해체작업	가. 안전한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는 일 나. 재료·기구의 결함 유무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다. 작업중 안전대 및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일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5조(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

- ① 사업주는 비계의 구조 및 재료에 따라 작업발판의 최대적재 하중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실어서는 아니 된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4에 따라 해체물의 구조, 주변상황 등을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별표 4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4의 10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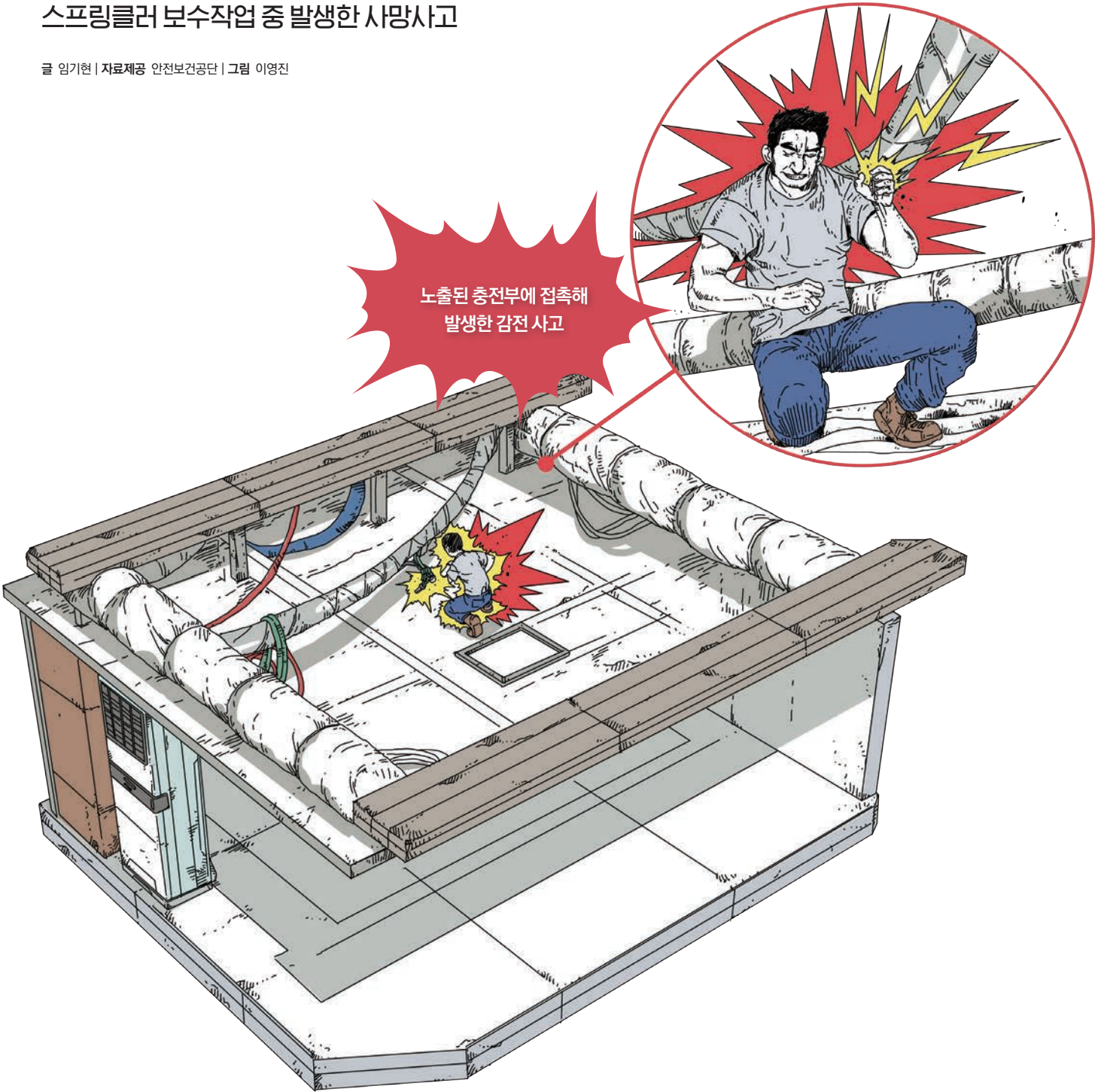
건물 등의 해체작업	해체건물 등의 구조, 주변상황 등	가. 해체의 방법 및 해체 순서도면 나. 가설설비·방호설비·환기설비 및 살수·방화설비 등의 방법 다. 사업장 내 연락방법 라. 해체물의 처분계획 마. 해체작업용 기계·기구 등의 작업계획서 바. 해체작업용 화약류 등의 사용계획서 사. 그 밖의 안전·보건에 관련된 사항
------------	--------------------	--

재해예방대책 법령정보 제공 : 최낙현 노무사 (노무법인 로정, 02.561.2871)

감전사의 원인이 된 땀이 흥건한 작업복

스프링클러 보수작업 중 발생한 사망사고

글 임기현 | 자료제공 안전보건공단 | 그림 이영진



스프링클러 보수작업 중 발생한 재해 사례

사업주는 근로자가 감전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시행할 시, 감전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충전부는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설치하거나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 또는 절연덮개를 설치하는 것이 안전하다.

감전의 위험이 도사리던 작업 현장

피약벌이 내리쬐는 어느 여름날.

손 씨는 서울에 위치한 대형빌딩 지하1층에 파견근무를 나왔다. 지하1층 식당가 복도 스프링클러에서 발생한 누수를 해결하기 위함이었다.

동료들과 본격적인 보수작업에 들어간 손 씨. 올해로 30년 경력의 베테랑 손 씨는 동료들에게 작업을 분담하여 현장을 지휘하기 시작했다.

“우선 막내는 공조실에 가서 소방용수 메인밸브를 잠그고, 스프링클러 배관 내부에 있는 소화용수를 회수해줘.”

“네! 알겠습니다!”

손 씨를 아버지처럼 따르는 이제 막 입사한 새내기 직원은 손 씨의 말대로 공조실로 향했고, 그 사이 손 씨는 보수작업을 하기 위해 보조작업자 이 씨와 함께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천장내부로 진입했다.

천장내부에는 스프링클러 및 배관은 물론 공조덕트, 금속전선관, 에어컨 배관, 조명등, 통신케이블 등이 어지럽게 설치되어 있었다. 더욱이 작업현장은 앉은걸음으로 이동해야 할 만큼 높이 역시 낮았다.

“현장이 복잡해서 조심해야겠군. 이 씨도 조심하라고.”

재빠르게 보수작업을 시작한 손 씨와 이 씨. 그들은 먼저 스프링클러 헤드부품(T부분 너트 등), 패킹, 플렉시블 배관을 빠른 속도로 교체하기 시작했다.

땀으로 흠뻑 젖은 만큼 후텁지근한 현장. 손 씨와 이 씨는 속도를 내 작업을 마쳤고,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천장내부에서 빠져나올 참이었다.

“공간이 좁으니까 이 씨 먼저 나가.”

손 씨의 제안에 현장을 앞서 빠져나간 이 씨. 그런데 웬일인지 아무리 기다려도 손 씨가 나오지 않는 것이었다. 무슨 일인가 싶어 천장내부를 다시 들여다본 이 씨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손 씨가 천장출입구로부터 약 90cm 떨어진 곳에 쓰러져 있었던 것! 급히 손 씨에게 돌아가 흔들어 깨어보았지만, 손 씨는 그 날 이후 영영 깨어나지 못했다.

사망으로 이어진 미흡했던 안전점검

작업을 순조롭게 마친 손 씨는 왜 갑자기 쓰러지고 만 것일까.

사고현장을 살펴본 결과, 손 씨는 전류에 감전된 것으로 밝혀졌다. 천장내부에 설치돼 있던 에어컨 실외기 전원선의 노출된 충전부에 접촉되었던 것이다.

당시, 검은 먼티를 착용했던 손 씨는 작업 중 땀에 의해 몸이 흥건히 젖어 있는 상태였고, 이 때문에 감전위험성이 매우 컸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에어컨 전원 측에 누전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당시 누전차단기가 작동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사고 당시 실외기의 에어컨은 가동되고 있지 않았으나 누전차단기가 ON 상태로 실외기 전원선에는 220V 전압이 인가되어 있었다. 손 씨는 작업 내내 220V 전압에 노출되어 있었던 것이었다. 그렇다면 누전차단기는 왜 작동하지 않았을까. 조사 결과 누전차단기는 월 1회 이상 작동상태를 점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래도록 이상여부를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손 씨의 죽음은 실외기 전원선을 확인하거나 누전차단기 점검만 실시했다더라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전기기계·기구 조작 중 감전사고 예방책

전기기계·기구의 조작부분을 점검하거나 보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전기 기계·기구로부터 폭 70cm 이상의 작업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대책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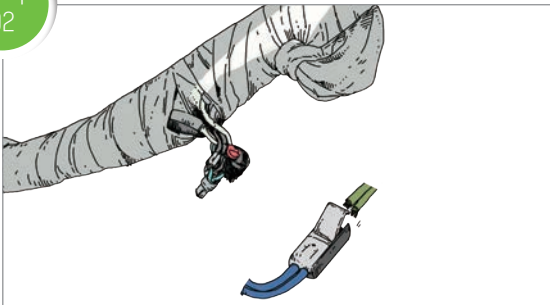


작업 전 안전점검을 실시하세요

천장내부 작업 시에는 전기기계·기구 등의 충전부에 접촉되거나 작업 중 떨어짐 등의 다양한 재해위험이 산재합니다. 따라서 작업 전 안전·보건점검 및 이상유무 확인 등이 필수입니다.

사업주는 천장내부 등 재해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실시할 때 사전에 작업자의 작업복 착용상태를 확인하고, 안전통로 확보, 감전·떨어짐 등 잠재위험요인에 대하여 안전·보건점검 등을 실시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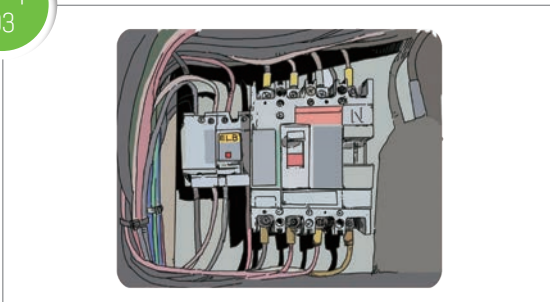
대책 02



충전부 노출 여부를 확인하세요

사업주는 천장내부 출입 등 작업 시 근로자가 전기기계·기구 등의 충전부에 접촉되지 않도록 충전부 방호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실외기의 전원선 연결 압착슬리브를 커넥터 등으로 방호하거나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절연 조치를 하고, 근로자로서 하여금 안전조치를 준수하도록 확인하는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대책 03



월 1회 누전차단기를 점검하세요

누전차단기는 정격감도전류 30mA에서 0.03초 이내에 동작하여 차단되어야 하지만 예시에서 발생한 감전사고의 경우, 누전차단기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누전사고 발생 시 누전차단기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반드시 월 1회 이상 시험버튼 등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이물질, 고장 등에 의해 오동작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고장 시 즉시 보수 또는 교환해야 합니다.

Step 03

배관 부품 교체작업 중 안전조치 관련 규정

사업주는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하기 전, 해당 누전차단기의 작동상태를 항시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보수하거나 교환하여야 한다. 또, 분기회로 또는 전기기계·기구마다 누전차단기를 접속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1조(전기 기계·기구 등의 총 전부 방호)

1.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外函)이 있는 구조로 할 것
2.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할 것
3. 충전부는 내구성이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여 감쌀 것
4. 발전소·변전소 및 개폐소 등 구획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이 금지되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하고, 위험표시 등의 방법으로 방호를 강화할 것
5. 전주 위 및 철탑 위 등 격리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할 것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4조(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

-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전기 기계·기구에 대하여 누전에 의한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전로의 정격에 적합하고 감도가 양호하며 확실하게 작동하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작업시작 전에 접지선의 연결 및 접속부 상태 등이 적합한지 확실하게 점검하여야 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이중절연구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으로 보호되는 전기기계·기구
 2. 절연대 위 등과 같이 감전위험이 없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

3. 비접지방식의 전로

④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하기 전에 해당 누전차단기의 작동상태를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보수하거나 교환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누전차단기를 접속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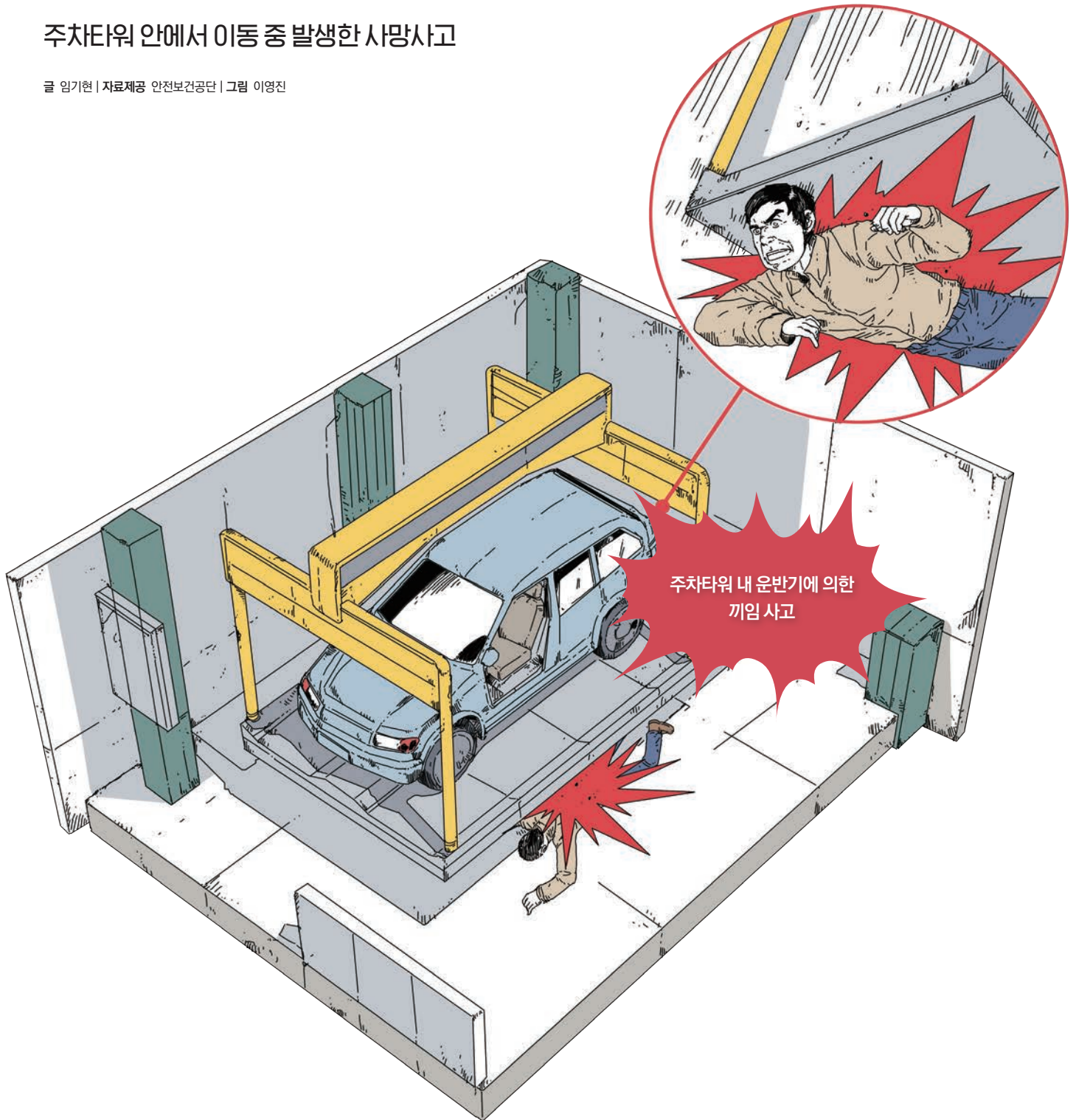
1. 전기기계·기구에 설치되어 있는 누전차단기는 정격감도전류가 30밀리암페어 이하이고 작동시간은 0.03초 이내일 것. 다만, 정격전부하전류가 50암페어 이상인 전기기계·기구에 접속되는 누전차단기는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격감도전류는 200밀리암페어 이하로, 작동시간은 0.1초 이내로 할 수 있다.
2. 분기회로 또는 전기기계·기구마다 누전차단기를 접속할 것. 다만, 평상시 누설전류가 매우 적은 소용량부하의 전로에는 분기회로에 일괄하여 접속할 수 있다.
3. 누전차단기는 배전반 또는 분전반 내에 접속하거나 콧음접속기형 누전차단기를 콘센트에 접속하는 등 파손이나 감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장소에 접속할 것
4. 지락보호전용 기능만 있는 누전차단기는 과전류를 차단하는 퓨즈나 차단기 등과 조합하여 접속할 것

재해예방대책 법령정보 제공 : 최낙현 노무사
(노무법인 로정, 02.561.2871)

주차타워 안에서 들려온 후배의 비명

주차타워 안에서 이동 중 발생한 사망사고

글 임기현 | 자료제공 안전보건공단 | 그림 이영진



Step 01

기계식주차장치 사용 중 발생한 재해 사례

기계식주차장치는 빌딩이 밀집되어 있는 도시의 주차난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을 주지만,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을 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사업주는 승강기의 수리·조정 및 점검 등의 작업을 제외하고 화물용 승강기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자.

후배의 마지막 장소가 된 주차타워

에어컨 판매영업직으로 7년째 일하고 있는 황 씨. 매년 최고의 판매실적을 자랑할 만큼 누구보다 성실하기로 소문난 황 씨는 이날도 어김없이 에어컨 판매를 위해 한 빌딩을 찾았다.

황 씨가 방문한 빌딩은 다양한 회사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주차하기 어렵다는 명동 한복판에 위치해 있었다.

“명동이면 주차하기 힘든 것 아니에요? 벌써부터 걱정되는데요.” 황 씨와 동행한 신참내기 조 씨의 걱정에 황 씨는 귀엽다는 듯 웃음을 지었다.

“우리 막내, 걱정도 많네. 회사 빌딩인데 주차장 없을까봐?”

“아, 그렇구나. 제가 서울에 온지 얼마 안 돼서 잘 몰랐어요. 역시 서울은 멋진 곳이네요!”

“요 근처에 내가 잘 아는 맛집이 있으니, 업무 끝난 후에 같이 가자고.”

“우와! 역시 선배님 최고!”

직장 때문에 지방에서 서울로 거처를 옮긴 신입사원이 안쓰러워 늘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강했던 황 씨. 어려운 점은 없는지 이것저것 물으며 기분 좋게 목적지에 다다른 황 씨는 능숙하게 빌딩 외부 주차장으로 진입했다.

주차장은 주차타워 구조로, 기계식주차장치 운반기 위에 차량을 세우면 기계가 자동으로 비어있는 층에 차량을 주차해 주는 형식이었다.

“우리 후배님, 먼저 내리세요.”

조수석에 탄 신입사원을 먼저 내리게 한 후, 기계식주차장치 운반기 위에 차량을 세운 황 씨는 주차타워 밖으로 나오던 중 미팅에 필요한 볼펜을 차량 안에 두고 내린 사실이 떠올랐다.

“내가 이렇다니까. 후배님, 차에 가서 볼펜 좀 가져다주겠어?”

“아, 그럼요.”

후배가 차량에 간 사이, 마중 나온 담당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황 씨.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후배의 끔찍한 사고를 대면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잊히지 않는 그날의 사고

주차타워 안에서 들린 후배의 비명소리. 곧이어 열린 주차타워 출입문. 그리고 운반기와 지면바닥 사이에 끼여 피를 흘리고 있는 후배의 처참한 모습.

이것이 황 씨가 기억하는 찰나의 장면들이다. 어찌된 영문인지는 몰랐지만 급하게 119를 부른 황 씨. 하지만 병원으로 이송된 후배는 그날 사망하고 말았다.

후배는 어찌다 사고를 당하게 된 것일까.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후배가 볼펜을 가지러 간 사이, 주차타워 리원은 주차타워 안에 사람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주차장치를 가동시켰다.

주차타워 안에는 감지센서가 설치되어 있어 승용차 운전석 문이 열려있거나 물체가 감지되는 경우 주차장치 조작이 불가능했지만, 후배는 이미 승용차 안에 들어가 있어 감지센서가 그의 존재를 감지할 수는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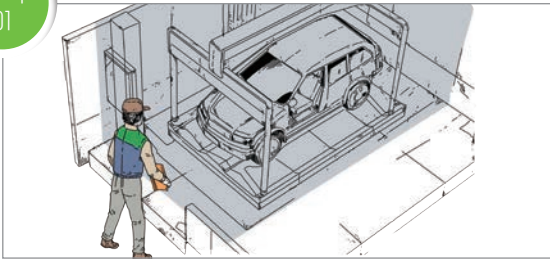
주차장치가 가동되자 차량에 있던 후배는 당황해 급히 차량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후배가 있던 곳은 57번 운반기. 그때 58번 운반기가 하강하면서 후배의 전신을 덮치고 말았고, 후배는 피할 곳도 없이 그대로 운반기에 의해 압착되고 말았다.

후배의 마지막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황 씨. 황 씨는 그날의 사고를 여전히 기억하며 슬픔에 젖어있다.

기계식주차장치 사용 중 발생하는 끼임 사고 예방책

기계식주차장치는 주차장치 운반기에 의한 재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사용자는 주차타워 내 출입을 해야 할 경우 주차관리원에게 알리는 등, 임의로 행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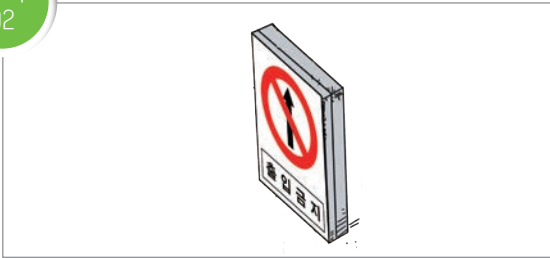
대책
01



주차장치 가동 전 주차타워 내부를 확인하세요

주차장치를 조작 및 가동하고자 할 때에는 주차타워 내부의 이상유무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상태에서만 주차장치를 가동시켜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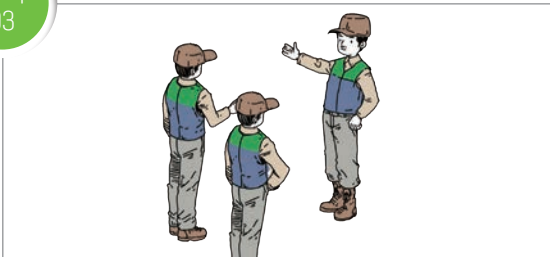
대책
02



출입금지 표지판을 추가 부착하세요

주차장 및 주차설비는 차량 주차를 위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 이용장소인 만큼 보다 적극적인 주차타워 내 임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주차타워 입구 전면에 '출입금지' 표지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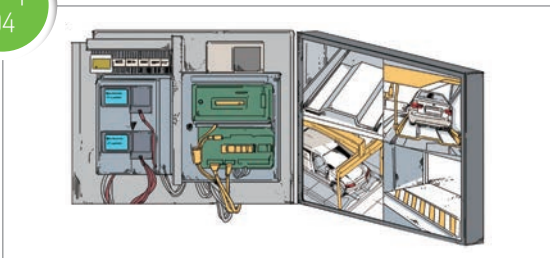
대책
03



상시 교육이 필요합니다

주차장치를 조작 및 가동하는 주차관리원을 상시 교육 및 배치하여 이상유무 발견 시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대책
04



안전장치 작동 확인

기계식주차장치는 감지센서 및 운반기 등의 다양한 기인물이 작동하여 움직이는 만큼, 사업주는 주차장치를 가동시키는 데 필요한 모든 안전장치를 수시로 점검해야 합니다.

Step 03

기계식주차장치 사용 중 안전조치 관련 규정

기계식주차장치는 화물용 승강기의 일종으로,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안 된다. 따라서 주차장치를 가동시키기 전, 반드시 이상유무와 주차장치 내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탑승의 제한)

⑥ 사업주는 화물용 승강기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승강기의 수리·조정 및 점검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

①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벌칙)

제23조 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정밀안전검사 기준(제18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및 방법

가. 기계식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는 아래에서 정하는 검사방법에 따라 검사장비·관능 또는 서류 확인 등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기계식주차장치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관능·서류 등으로 식별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다음의 경우에는 검사장비에 의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 1) 작동 센서의 강제 감지로 동작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2) 신품과 동일한 상태로 견고하게 고정된 전동기·감속기의 명판의 육안 확인
- 3) 이상소음 및 진동 발생으로 결함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4) 공간이 협소하여 계측기 측정이 곤란한 경우

나.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장치는 PLC프로그램을 동기화하여 감지장치를 작동시켜 안전기준을 확인 한다.

다. 안전장치, 기계장치 및 와이어로프 등 검사개소가 다수인 경우 검사항목별 전수검사를 실시한다.

라. 주요 승강구동부에 대한 용량 및 강도계산 결과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2단식주차장치 및 다단식주차장치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1) 전동기, 감속기, 브레이크 및 유압펌프의 정격용량이 최소요용량 이상일 것
- 2) 전동장치,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 구동축 및 베어링의 허용응력이 최대 소요용량 이상이거나 제7조제1항에 의한 안전율 이상일 것

마. 검사기수는 전수검사를 실시한다. 단, 2단식은 KS Q ISO 2859-1부표1의 보통검사수준Ⅱ의 기준에 따라 검사대상기수 선정한다.

재해예방대책 법령정보 제공 : 최낙현 노무사
(노무법인 로정, 02.561.2871)

알뜰 살뜰 다친 마음 돌보는 마음치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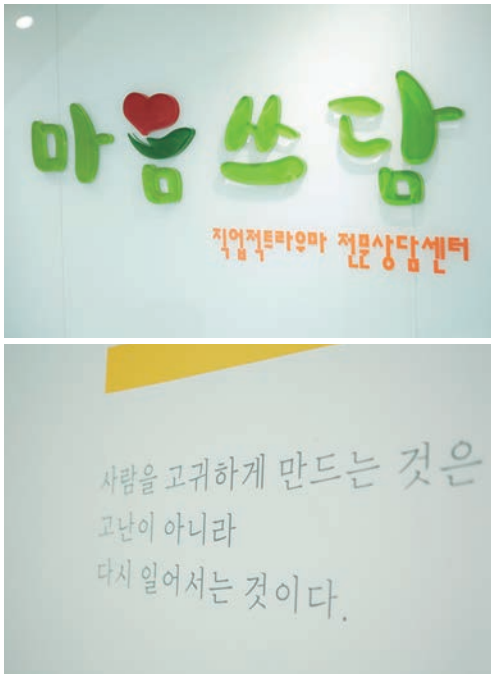
대구근로자건강센터 직업적 트라우마 전문상담센터
양선희 부센터장 & 김미연 심리상담사

직업적트라우마
전문 상담센터



직무 스트레스와 직업적 트라우마를 되돌아보게 만드는 일련의 사회적 이슈들로 노동자의 인권 및 처우개선과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제 막 시범운영을 시작한 대구근로자건강센터 직업적 트라우마 전문상담센터의 양선희 부센터장과 김미연 심리상담사는 각각 외적으로, 그리고 내적으로 병들고 멎든 노동자들의 마음을 보듬어주는 환상의 콤비다.

글 임지영 | 사진 안용길(도트 스튜디오)



직업적 트라우마 대응을 위한 최초의 전문상담센터

갑을관계, 스트레스, 우울증. 여기에 대형 산업재해와 동료의 자살.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나는,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감정 노동자다. 감정적 외상쯤이야 오롯이 개인의 몫으로 참고 견뎌내야 하는 ‘감정 노동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앞으로는 고객의 폭언 등 갑질과 동료자살 등의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면 ‘직업적 트라우마 전문상담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지난 5월 31일부터 고객의 폭언, 폭행, 대형 산업재해, 동료의 자살 등 충격적인 노동사건이 발생한 사업장 내 노동자들의 심리적 안정과 일상복귀 지원을 위해 직업적 트라우마 전문상담센터를 시범운영하기 시작한 것.

산업재해 트라우마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개선하게 된 배경에는 지난해 5월 1일 발생한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크레인 사고가 있다. 사후 피해 노동자들의 트라우마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초기대응 실패 등과 같은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사고 발생 4개월이 지나서야 경남근로자건강센터를 중심으로 트라우마 관리 사업이 시작되면서 트라우마 고위험군에 속한 다수 노동자들은 심리상담을 받지 못한 채 현장을 떠났다. 뒤늦게 상담사들과 연락이 닿은 노동자들은 “겨우 잇고 살고 있었는데 왜 이제 와서 다시 사고기억을 떠올리게 하느냐”며 강한 불만과 불신을 드러냈다. 예산도 제대로 지원되지 않았다. 별도 상담공간을 마련하지 못해 안정적인 대면상담을 하지 못했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산재 트라우마 관리 프로그램을 재점검하고 구축한 것이 직업적 트라우마 전문상담센터예요. 트라우마 상담경험이 풍부한 심리상담사가 상주하여 긴급한 사건에 대응하도록 만들어졌죠.” 양선희 부센터장이 대구근로자건강센터 내 전문상담센터인 ‘마음쓰담’을 흐뭇한 눈으로 바라보며 말한다.

단계적 접근 통한 '마음치료'

'트라우마 전문상담센터'의 시범운영 기관으로 지정된 대구근로자건강센터는 2016년 6월 경북 고령 제지공장에서 발생한 황화수소 중독 사망사고를 계기로 다른 지역 근로자건강센터에 앞서 트라우마 상담 시스템을 도입했다. 지역의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산재 피해 노동자 트라우마 상담을 하면서 노하우를 쌓은 것이 도움이 됐다.

이와 관련해 산업재해 트라우마 시스템 구축에 앞장선 양선희 부센터장은 "중대재해 중에서도 삼성중공업 사고 같은 재난에 가까운 대규모 산재가 발생했을 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한다.

아직은 시범운영 과정이지만, 직업 트라우마 전문상담센터가 자리를 잘 잡아 노동자 '마음치료'의 반석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그녀의 기대다.

"대형 산재사고를 비롯한 직업적 트라우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저희들의 역할이고, 트라우마 상담센터 시범운영의 성패를 좌우할 관건이 될 거예요."

다친 마음은 '달리기' 마련이다. 한번 달린 마음의 문을 열기란 결코 쉽지 않은 일일 것이다. 이에 대해 세월호 유가족의 트라우마 심리상담사이자 13년의 트라우마 전문 상담 경력을 지닌 김미연 상담사는 얼마 전 구미 제조공장에서 발생했던 안타까운 사고의 기억을 떠올렸다. "기계에 동로의 몸이 끼는 사고를 목격한 노동자들을 상담한 적이 있어요. 사고 직후 긴급안정화를 위한 트라우마 교육을 실시했는데 대부분의 직·간접 목격자분들이 '얼음'이라 불리는 무감각한 상태, 호흡곤란, 수면장애 등의 신체적 반응 및 심한 불안증세 등의 정서적 반응을 호소하셨습니다. 이후 개인상담을 진행하러 갔을 때 그분들이 보인 트라우마 상태는 심각한 정도였어요."

그 트라우마가 안정되기까지 한 달여의 시간이 걸렸다. 외상이 치유된 후 노동자들은 그녀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상담을 하는데 그치지 않고, 기다림을

직업적 트라우마 전문상담센터

상담대상자

* '직장에서 발생한 사건사고'로 심리적 충격이 큰 노동자

- 산업재해 피해자 및 직·간접 목격자
-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경험자
- 동료자살 직·간접 목격자
- 직장생활 중 폭언, 폭행 경험자 등

프로그램 내용

- 트라우마 긴급 안정화를 위한 전문교육
- 트라우마 종류별 전문심리상담
- 관련 심리검사
- 상담 종결 후 사후관리(전화모니터링) 등

프로그램 형태

- 트라우마 긴급 안정화를 위한 전문교육
- 1:1 대면상담
- 집단(그룹)상담
- 트라우마 종류별 전문심리상담
- 상담 종결 후 모니터링 등
- 상담전문가를 위한 정기적 교육 실시

상담시간 및 안내

- 시간: 평일 오전 09:00-18:00
- 전화: 1588-6497 / Fax: 053-285-0007
- 상담예약필수





“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실시간으로 사건정보를 공유해 목격자, 동료작업자, 사고수습과정에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노동자들에 대해 적기에 심리안정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

함께 해준 데 대한 감사다. 센터에 상주하는 전문 상담사가 혼자뿐이다 보니 일인다역을 하느라 바쁘지만 노동자들의 트라우마 극복에 일익을 담당하겠다는 의지로 굳건히 헤쳐 나가고 있다.

“조만간 상담경험이 풍부한 심리상담사가 더 충원이 될 거예요. 보다 신속하고 유기적이며 효율적으로 수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상처받은 마음을 낮게 하는 약이 되고파

전문상담센터는 지방관서 및 근로자건강센터와 유기적인 협업 속에서 일하게 된다. 대형 산업재해나 취약한 노동조건에 기인한 자살사건 등 사회적 이슈사건은 전문상담센터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협조를 받아 즉시 개입하고, 충격적인 노동사건의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요청에 따라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된다. 특히, 대형 산업재해발생 현장에 대해서는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실시간으로 사건정보를 공유해 목격자, 동료작업자, 사고수습과정에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노동자들에 대해 적기에 심리안정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김미연 상담사는 “관리되는 트라우마는 차라리 낫다”며, “우울, 불안과 같은 일상적 직무 스트레스의 경우 소소한 것으로 여겨져 관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큰데, 오히려 이런 것들이 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며 우려를 내놓았다.

“밀폐된 공간에서 일하는 감정노동자들의 경우, 동료관계를 더 힘들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목표, 실적 위주의 업무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유독 높고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얽혀 직무 스트레스와 트라우마가 복합적인 양상으로 나타나면 치료가 쉽지 않죠.”


스트레스 검사와 사건충격척도 검사를 통해 침습, 회피, 과각성증상, 수면장애, 정서적 마비나 해리증상을 보이는지를 면밀히 살펴보고 미리 적절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국가와 사업장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정신건강 관리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하고는 있지만 대부분의 사업장, 특히 소규모 사업장은 정신건강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심리상담에 대한 거부감도 있다. 또 현실적으로 물리적 환경이 주는 제한도 있어 도움을 주려고 해도 사업장 접근 자체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상담사가 개인적으로 접근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요. 국가적으로 이들 사업장이 신체건강 상담뿐 아니라 정신건강 상담도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탈무드에는 ‘상처받은 마음에 바를 수 있는 약은 없다’는 구절이 있다. 직접 바를 수 있는 약은 없지만, 상처에 귀 기울이고 함께 해결하려는 노력이야말로 다친 마음의 유일한 치유수단임을 두 사람은 굳게 믿고 있다. 오늘도 보이지 않는 외상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을 만나러 분주한 걸음을 하는 두 사람. ‘없던 길을 만들어 가는 느낌’이라던 양선희 부센터장의 말처럼 트라우마 전문 상담센터의 미래는 노동자의 건강을 생각하는 이들의 어깨에 달려 있다.



Mini Interview



양선희
부센터장



김미연
심리상담사

“김미연 상담사는 추진력이 있고 판단력이 뛰어난 상담사입니다. 세월호 유가족 상담을 했을 정도로 노련한 경력을 자랑하지만 아직도 낯설거나 생소한 분야는 열심히 공부하는 열의를 보이죠. 3년 정도 함께 근무했는데 언제나 노동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요. 상처로 굳게 닫힌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한 대화로 이끌어내는 기술이 탁월합니다.”

“사실 노동자들이 상담을 받기로 결심하기까지는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에요. 본인의 트라우마를 밖으로 꺼내야 하는 과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상담을 할 때 되도록 많이 들어주려고 해요. 트라우마로 마음에 상처가 나신 분들이 계시다면 혼자서 앓지 마시고, 꼭 센터의 문을 두드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직업적 트라우마 전문상담센터가 원하는 스트레스 관리법

가족과의 대화는 만병통치약

최후의 보루는 역시 '가족'이다. 내 문제라고 혼자 가슴에 품어 봐야 병만 커질 뿐. 그날 경험했던 힘든 일이나 감정노동을 개인적인 일로 치부하지 말고 가족에게 털어놓고 공유하면 기쁨은 두 배, 슬픔은 절반이 된다.



땀 흘리는 운동을 한다

신체건강이 정신건강으로 이어진다는 말은 옳다. 스트레스에 지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무력감, 자기모멸감만 더 커질 수 있다. 몸을 움직이고 땀을 흘리는 운동으로 살아있음을 느껴 보자. 적절한 운동은 불면과 생체리듬을 회복하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 신체 건강은 물론 정신 건강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아보자.



푸른색을 자주 접하고 다양한 촉감을 느낀다

생동감 넘치는 푸른색은 우울한 기분을 전환하는데 도움이 된다. 어떤 문제에 지나치게 집중해 헤어 나오지 못할 때, 부드러운 촉감이나 매끄러운 촉감 등 내 주변의 사물을 만지며 촉감을 느끼면 내가 처한 문제가 아닌, 나 자신, 지금 내가 있는 공간에 초점을 맞추는데 도움이 된다.



마인드컨트롤 & 동기부여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만이 아닌 '행동하는' 긍정주의자가 되자. 어려운 환경이나 스트레스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해결방법을 찾아내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업무에 충실하면서도 나를 잊지 않는 것, 내 삶의 행복의 기준을 찾는 것, 그래서 일에 매몰되지 않는 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바람직한 자세이다.





수영 잘하니까 괜찮아?

**여름철 물놀이,
안전요원도 조심한다**

익사란 액체가 기도로 흡입되어 질식사망하는 것을 말한다. 물에 완전히 빠진 것이 아니라도, 소량의 물이 기도를 폐쇄시키면 익사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물놀이가 많아지는 여름철에는 익사사고에 특히 유념해야 하는데, 놀라운 점은 익사사고는 비의도적 사망 원인으로 교통사고 다음인 2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글 조승진 (사단법인 수상인명구조교육협회 대표이사)

익수자는 말이 없다

사람이 물에 빠지면 누구나 알아 볼 수 있게 허우적거리며 “사람 살려”라는 소리를 질러 도움을 요청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상은 전혀 다르다. 실제 물에 빠진 사람들은 호흡이 어려워 상황대처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게 되고 심리적 공황상태에 빠져 경직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워터파크나 해수욕장 등 사람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물에 빠진 것을 몰라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특히 어린이 익사사고는 성인들과 달리 살려달라고 소리치지도 못하고, 손을 물 밖으로 흔들지도 않으며, 익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익사사고는 익사사고가 생길 수 있다고 예측할 수 있는 환경(수심이 깊거나 파도가 큰 바다 등)에 의해 발생하기도 하지만, 어린이의 경우 어린이 무릎 수준의 물높이에 서도 생길 수 있다. 그 이유는 얕은 물에서는 누구도 익사를 의심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대부분의 어린이들은 발을 딛는 방법을 몰라 엎드려 익사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옆에 어른들 또는 친구가 있어도 장난인줄만 알고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말 그대로 접시 물에 빠져죽는 것이다. 더욱 놀라운 점은 어린이 익사사고 대부분은 부모 주변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이다. 부모들의 범위 내에서 물놀이가 이루어질 때 오히려 주의를 덜 기울이게 돼 결국 사고로 이어지는 것이다.

흔히 부모들은 자기가 볼 수 있는 안전범위 내에 아이들이 있으면 안심하고 다른 일을 하는 경우가 있으며, 어린이는 위험에 대한 불안감이 적어 대범한 행동을 하기 쉽다. 이것이 바로 매년 휴가철이 되면 곳곳에서 익사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유이다.

인명구조요원이 있으면 괜찮지 않을까?

각 유원시설 및 체육시설에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인명구조요원을 배치한다. 그러나 여름철만 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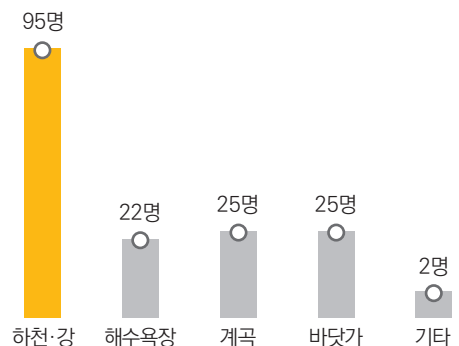
해수욕장, 워터파크, 계곡 등에서 발생하는 익사 사고 뉴스가 끊이지 않는다. 인명구조요원들이 배치되어 있는데도 익사사고로 이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큰 이유는 ‘안전할 것이라는 착각’에 있다. 안전에 100%란 없다. 그러므로 가족동반으로 물놀이를 할 때 어른들은 반드시 어린이에게서 눈을 떼지 말아야 하고, 안전범위 내에 있다고 생각이 되어도 늘 주의를 살피는 습관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익수자의 유형은 ①물속에 잠겨 바닥에 발을 딛고 있으나 아무런 동작이 없는 경우 ②의식을 잃고 동작을 멈춘 경우 ③얼굴이나 입을 수면 위로 유지시켜 호흡을 하려고 하는 경우 ④숨을 쉬기 위해 몸을 뒤로 젖히는 경우 ⑤물위에 떠있으나 숨을 헐떡이며 과호흡 하는 경우 ⑥눈을 감고 있거나 초점이 풀려 있는 경우 ⑦무엇을 잡으려고 쥐었다 폈다 하며 허우적거리는 경우 ⑧수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앞으로 가지 않는 경우 ⑨양팔을 양옆으로 벌려 허우적거리는 경우 ⑩발동작 없이 물속에서 몸이 수직으로 있는 경우 ⑪물속에서 과하게 많은 동작을 하는 경우 ⑫엎드려서 호흡은 하지 않고 발차기만 하는 경우 등이다.

익수자의 다양한 유형들을 인지하여 가족 및 주위 사람이 위급할 시, 주변사람들에게 알려거나 119에 즉각 신고하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

최근 5년간(2013~2017) 장소별 물놀이 인명피해 현황

*출처 행정안전부



사고발생 시 즉시 구조하는 것이 중요해

익사사고가 발생하는 장소에는 인공적으로 만든 수영장 또는 워터파크, 하천과 계곡, 바다 등이 있다.

수영장, 워터파크 등과 같은 인공적인 환경인 경우에는 계단 부근이나 출발대 아래, 발이 바닥에 닿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의 경계선, 배수면 근처에서 많은 사고가 일어난다.

더군다나 바닥이 타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미끄럼에 의한 머리, 손목, 발바닥 등의 신체부상에도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하천이나 계곡, 바다 등처럼 자연환경인 경우에는 대부분 지형적인 특성에 의해 많은 사고가 발생한다. 특히 하천이나 계곡은 수심 및 유속이 일정치 않고, 허리 깊이였던 수심이 한 발자국만 더 가면 신장을 넘기는 위험지역이 많다.

그리고 우천 시 갑작스레 물이 불어나는 등의 예측불가능한 부분도 많기 때문에 늘 물놀이를 하기 전에는 대피장소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상인명구조를 하다보면 바다에 비해 하천이나 계곡 등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가 훨씬 많은 것을 체감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바다에는 곳곳에 안전요원 및 구조대원들이 배치되어 있어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반면 하천과 계곡 같은 경우에는 안전요원이 없거나 출동하더라도 외진 지

역은 시간이 지체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구조대가 도착하기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가능하다면 신속하게 구조를 시도하는 것이 최선이다.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참고사항을 기억하였다가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자.

- ①익수자보다 구조하려는 사람이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환경이 안전한지 먼저 확인한다.
- ②도구를 이용하여 구조한다. 판자, 통나무, PET(물을 1/3정도 채우고)병, 아이스박스 등 부력이 있는 물건 또는 장대, 옷옷 등을 이용하면 된다.
- ③급류가 아니며 사람이 많고 수심이 가슴높이를 넘지 않는다면, 보는 방향을 서로 반대로 하고 풀리지 않도록 서로 손목을 잡아 인간사슬(손 연결) 방법을 쓸 수 있다.

눈치 챌겠지만, 이와 같은 방법들은 모두 수영을 통해 구조하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기 위해 무턱대고 물에 들어갔다간 곧 동반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물에 빠진 사람은 무엇인가를 잡아서 누르는 힘이 평소의 3~4배에 달하게 되어 구조자까지 위험에 처할 수 있다. 훈련받은 요원들도 물 밖에서 구조를 우선적으로 실시한다는 것을 명심하자. 최선의 구조방법은 물 밖에서 구조하는 것이다.

차가운 물에서 생존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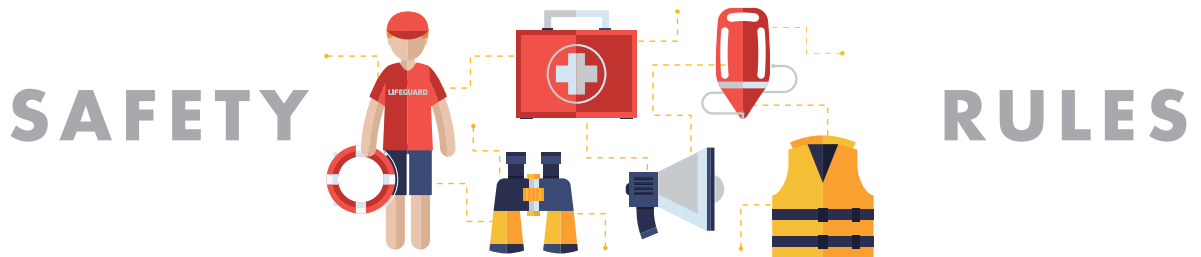
*출처 사단법인 수상인명구조교육협회

온도	몸이 둔해지는 시간	탈진 또는 기절(무의식)	생존예상시간
0.3	2분 이하	15분 이하	15~45분
0.3~4.5	3분 이하	15~30분	30~90분
4.5~10	5분 이하	30~60분	1~3시간
10~15	10~15분	1~2시간	1~6시간
15~21	30~40분	2~7시간	2~40시간
21~26.5	1~2시간	2~12시간	3시간~일정치 않음
26.5 이상	2~12시간	일정치 않음	일정치 않음

물놀이 10대 안전수칙

물놀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물놀이 위험 및 금지구역에서의 수영을 금하는 것이다.
실내 수영장과 야외의 물놀이 현장은 환경 자체가 매우 다르므로, 자신의 수영능력을 과신하지 않는 자세가 필요하다.

- ☑️ 수영을 하기 전에는 손, 발 등의 경련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준비운동을 하고 구명조끼를 착용한다.
- ☑️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 때, 배가 고프거나 식사 후에는 수영을 하지 않는다.
- ☑️ 물에 처음 들어가기 전 심장에서 먼 부분(다리, 팔, 얼굴, 가슴 등의 순서)부터 물을 적신 후 들어간다.
- ☑️ 장시간 계속 수영하지 않으며, 호수나 강에서는 혼자 수영하지 않는다.
- ☑️ 수영 도중 몸에 소름이 돋고 피부가 당겨질 때에는 몸을 따뜻하게 감싸고 휴식을 취한다.
- ☑️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주위에 소리쳐 알리고(즉시 119에 신고), 구조에 자신이 없으면 함부로 물속에 뛰어 들지 않는다.
- ☑️ 물의 깊이가 일정하지 않고 갑자기 깊어지는 곳은 특히 위험하니 물 깊이를 알 수 있는 곳에서만 물놀이를 한다.
- ☑️ 수영에 자신이 있더라도 가급적 주위의 물건들(튜브, 스티로폼, 장대 등)을 이용해 안전한 구조를 한다.
- ☑️ 자신의 수영능력을 과신하여 무리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 ☑️ 물놀이 중에는 껌이나 사탕을 먹지 않는다.



아이와 동행한 어른의 경우, 기억하세요!

얕은 물가나 수심이 깊지 않은 곳이라고 해도 어른이 먼저 물에 들어가서 물의 깊이와 온도, 바닥의 상태, 수온, 유속 등을 확실하게 확인한다.

평소 수영 기술 및 얕은 물에서도 발을 딛는 방법을 가르친다.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생길 때는 큰 소리를 쳐 다른 사람의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을 가르친다.

다이빙하기에 안전할 때만 다이빙을 하게 허락한다.

아쿠아슈즈 등을 신어 유리나 날카로운 돌 등에 발이 찢길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도록 한다.

구명조끼는 반드시 규격에 맞는 제품을 사용하고, 안전끈을 꼭 착용한다.

차가운 물에서는 수영하지 않도록 한다.

자존감 하락과 슬럼프

네가 대체 뭐길래 날 이렇게 힘들게 하니

“자존감을 회복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아마도 이 질문은 최근 10년 동안 가장 많이 던져진 질문일지도 모른다.
자존감과 관련된 책들도 수없이 쏟아져 나온다. 자존감 하락은 대체 왜 발생하는 것일까.
그리고 자존감 하락이 불러온 슬럼프는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글 이상(허그맘 허그인 EAP(기업심리) 상담사, 강남본점 부원장)

자존감 회복에 관심 많은 당신에게

이십대 후반의 여성 A씨는 3년차 직장인이었으나 별이가 모자란다고 느껴서 밤에는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다가 몇 개월 후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다. 유흥업소에서 알게 된 유부남은 그녀가 머물 집과 생활비를 대줬고 그녀는 곧 일하던 가게도 그만두게 되었다.

일 년 정도 지내다가 그녀는 심리상담을 받아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첫 면담이 끝날 즈음 그녀는 내게 물었다.

“자존감을 회복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자존감을 회복시키고 싶다면 먼저 자존감이라는 단어 자체에 자신을 넣고 엮매이지 말아야 할 것이다. 불륜은 세상과 사람들 그리고 나에 대한 불신을 가져온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이 속해 있는 상황은 바꾸고 싶지 않으면서 자존감은 회복되었으면 하고, 또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한 답을 내게 요구했다. 자존감을 회복하려면 내가 왜 이러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다른 방법들이 있었는데 못 보고 있었던 것은 없었는지, 왜 비슷한 문제에 자꾸 걸려 넘어지게 되는지에 대해서 탐색해나가야 하는데, A씨는 이 모든 과정을 뒤로 하고 무릎을 탁 치게 하는 명쾌하고 분명한 답이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것이었다. 고통 중에는 시야가 좁아져서 나 밖에 모르게 되기 쉽다. 그래서 지금까지 고수해왔던 익숙한 방법에만 매달리기 쉽다. 이렇게 되면 자존감 회복은 사실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고원현상과 소진 증후군

주변에서는 아무도 그럴 거라고 상상하지 못하지만 주중에는 평범한 대학 교수로 지내다 주말에는 지방으로 내려가 이들 연속 도박에만 매달리게 된 사람, 이십대 젊은 나이에 한 번의 사업 실패로 오십대까지 부모에게 얹혀사는 사람, 승진시험에서 고배를 마시고 퇴직을 생각하는 사람, 경기에서 몇 번 부진했던 것으로 은퇴를 심각하게 고려하는 운동선수 등 한번 슬럼프에



빠졌다가 헤어 나오지 못하는 경우를 일반인들도 심심치 않게 보고 또 경험할 것이다.

소진 증후군(Burn Out Syndrome)은 포부 수준이 지나치게 높고 전력을 다하는 성격의 사람에게서 나타나기 쉽다. 소진 증후군은 의욕적으로 일에 몰두하던 사람이 신체적, 정신적 피로감을 호소하며 무기력해지는 현상이다. 소진 증후군과 비슷한 고원현상(Plateau Phenomenon)의 경우, 초기 몇 번의 학습 과정 이후에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수행능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지만 어느 시점에서는 수행능력이 더 이상 진전되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 스포츠에서 많이 사용되는 용어인 슬럼프(Slump)는 고원현상과는 달리 소침 또는 부진상태란 의미로 연습 효과가 오르지 않아서 의욕을 상실하고 성적이 저하된 시기를 말한다. 고원현상은 연습초기에 나타나는 현상인 것과 달리 슬럼프는 후기에 나타나는 것으로 기술의 악화, 심적인 동요, 초조함 등이 나타나게 된다.

심리상담을 하다보면 급성적인 문제로 인해 내방하기보다는 고통을 어느 정도 견디다가 묵혀서 오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내담자들은 고통이 쌓였을 때 겪게 되는 증상 혹은 문제를 '자존감이 낮아서 그런 것 같다'고 말함으로써 현재 나타나는 증상을 증상

자체가 아니라 원인으로 보는 경우도 많다.

자존감 회복을 위해서는 나의 부정적 부리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자존감이 낮다고 고백하는 내담자들 대개는 주변사람들의 평가에 민감하다거나, 자기주장이 안 되고, 늘 주눅 들어 있는 모습을 띤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자기 스스로 열등하다고 여기는 부분에 주의를 많이 기울이고 있다는 뜻이고, 이로 인해 스스로를 평가하는 척도가 망가졌음을 의미한다.

유흥업소에서 일하게 된 것은 '남자를 잘못 만나서', 승진을 못한 것은 '학벌이 나빠서', 사업에 실패한 것은 '부모가 뒷받침을 못해줘서', 예전의 구위를 찾지 못하는 것은 '관중들이 내 어깨가 좁기 때문이라는 소리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등등 그럴듯한 이유를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자존감이 낮거나 자신을 열등한 존재로 보는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자신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는 기전이 발동되는데 거기에는 원인이 있다. 그것은 바로 열등감의 관점으로 나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나의 부정적 관점이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반드시 다루어야 한다.

자존감 저하와 슬럼프에 빠진 근로자들을 위한 TIP

1 나는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우리 모두는 완벽했던 적도 없었으며 앞으로도 완벽할 수 없다. 자신이 완벽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정신감정을 받아야 할 사람이다. 나의 약점을 한 사람이라도 알아서는 안 되며 죽는 날까지 한 사람에게라도 더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내 인생에 더 이상 즐거움은 없으며 피로감이 쌓일 뿐이다.

2 주변으로부터 무조건적인 수용을 받기는 어렵지만, 지금 나에게겐 필요하다.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는 온전한 나로 인정받거나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이 수용되는 것이 쉽지 않다. 우리가 일생에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는 경우는 유아기일 때가 많지만, 이 또한 모든 부모가 행하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고 직장 상사나 후배, 부모나 배우자, 형제관계나 연인관계에서 무조건적인 건강한 관계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수용 받고 나를 깊게 이해하는 경험을 하게 되면 자존감이 살아난다. 때로는 정신과 의사나 심리상담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3 나를 비난하는 마음의 소리에 저항하자.

좌절을 겪거나 갈등을 겪었을 때 부모님과 주변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 지지를 경험한 사람은 난관을 딛고 일어나는 것이 어렵지 않다. 그러나 "네가 하는 게 뭐 늘 그럴지", "이미 그럴 줄 알고 있었어",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야" 같은 말을 듣고 자란 사람은 계속해서 자신을 먼저 탓하게 되어 앞으로 나아가질 못한다. 긍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말은 모두 마음에 있다. 객관성이 결여되고 합리적이지 않은 말에 흔들리는 것은 아닌지 점검하고 그 누구보다 내가 나를 위로해야 한다.

4 고원현상은 어떻게 극복하느냐의 문제다.

반복되는 일에 시달리다보면 발전이 없는 것 같고 늘 같은 자리에서 맴도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된다. 그리고 현재 내가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 가능할 수 없고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거나 너무 과대평가해서 실패를 겪은 후 더 큰 좌절에 빠질 수도 있다. 그러나 명심하자. 반복은 귀찮은 수행이지만 동시에 달인으로 가는 최고의 원동력이다.

SAFETY GUIDE | 나의 자존감은 어디쯤 있을까?

아니다 : 0 약간 그렇다 : 1 대체로 그렇다 : 2 그렇다 : 3

*출처 : 미국 SECS연구소

항 목	
나는 대체로 다른 사람보다 열등함을 느낀다.	사랑, 분노, 적대감, 증오, 기쁨 등을 표현하는데 자유롭다.
나는 보통 나 스스로를 향해 따뜻함과 행복을 느낀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 비평, 태도에서 상처를 받는다.
나는 새로운 상황을 만났을 때 걱정이 많다.	질투나 부러움 또는 의심을 경험한 적이 거의 없다.
나는 대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향해 따뜻함과 우정을 느낀다.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데 전문가이다.
나는 습관적으로 내 실수나 약점에 대해 스스로를 탓한다.	인종적, 민족적 혹은 종교적 그룹에 편견을 갖고 있지 않다.
나는 부끄러움, 책임, 죄책감, 후회로부터 자유롭다.	'진짜 나'를 드러내기 두려워한다.
나는 나의 가치와 탁월함을 증명하려는 욕망이 강하다.	다른 사람에게 친근감 있고, 사려 깊고, 너그러운 사람이다.
나는 살아가는데 큰 기쁨과 열정을 갖고 있다.	종종 내 약점, 문제, 실수에 대해 다른 사람을 비난한다.
나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 생각하고 말하는 것에 신경을 많이 쓴다.	홀로 있을 때 불안하거나 외롭고 소외감을 거의 느끼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이 잘못되는 것을 고쳐주려 하지 않고 가만 놔둘 수 있다.	강박적으로 완벽주의자다.
인정받으려는 강한 욕구가 있다.	당황하거나 보답해야 한다는 생각 없이도 칭찬이나 선물을 받는다.
대체로 정서적 불안, 갈등, 좌절로부터 자유롭다.	먹거나 담배 피우거나 술 마시고 싶은 충동을 종종 느낀다.
패배하는 것은 보통 나를 몹시 화나게 한다.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고 자주 칭찬한다.
나는 대개 차분한 확신을 가지고 새로운 일을 기대한다.	종종 실수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새로운 시도를 피한다.
다른 사람을 타하는 경향이 있고 가끔씩 그들이 처벌받기를 바란다.	노력하지 않고도 친구를 사귀고 유지한다.
보통 나 스스로 생각해서 나 스스로 결정한다.	자주 나의 가족이나 친구의 행동 때문에 당황한다.
자주 다른 사람들의 능력, 부, 특권 때문에 그들의 의견을 쫓아가곤 한다.	내 실수나 단점, 패배를 기꺼이 인정한다.
나의 행동의 결과를 기꺼이 책임진다.	나의 행동, 의견, 신념을 변호할 강한 필요를 경험한다.
바람직한 이미지를 유지하려고 과장하고 거짓말하는 경향이 있다.	패배감이나 비참함을 느끼지 않고 의견의 불일치, 거절을 받아들인다.
나 자신의 필요와 욕구에 우선순위를 두고 산다.	확인과 동의를 강하게 필요로 한다.
내가 가진 재능이나 소유, 성취를 과소평가하곤 한다.	새로운 생각과 제안에 정말로 마음이 열려있다.
보통 내 자신의 의견이나 확신을 강력히 표현한다.	관습적으로 다른 사람과 인격적 비교로 나 자신의 가치를 판단한다.
습관적으로 내 실수나 패배, 좌절을 부인하거나 변명 또는 합리화한다.	내 마음에 와 닿는 어떤 생각을 하는데 자유롭다.
낮선 사람들 속에서도 편안하다.	자주 나 자신과 내 소유와 성취에 대해 떠벌린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 자주 비판적이다.	자신의 권위를 인정하고 나 자신이 적합하다고 느껴지는대로 행동한다.

결 과

미국 SECS연구소의 발표에 의하면 평균은 25점이며 미국 대학졸업자의 평균 자존감 지수는 22점이었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인사(기업CEO)들의 평균 지수도 28점으로 그리 높지 않았다. 건강한 자존감 지수는 65점부터 이며 35점 이하는 자존심을 높이기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

통로에 있는 물건, 생명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화재는 계절을 막론하고 어느 곳, 어느 때나 발생할 수 있다. 특히 통로에 있는 물건은 화재 피해를 확산시키는 주범으로 손꼽힌다. 통로에 있는 물건 때문에 대피가 어려웠던 두언 씨의 아찔했던 경험담을 통해 안전수칙의 중요성을 알아보자.

글 편집실



통로에 있는 물건 때문에 대피가 어려웠던 두언 씨

구로에 있는 대형마트에서 일한 지도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타향살이가 여전히 쉽지는 않지만, 업무도 손에 익었고 점장님의 배려 덕분에 간단한 한국어도 곧잘 할 줄 알게 되어 이제는 척하면 척 알아듣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제가 맡은 업무는 매일 매일 들어오는 새로운 상품을 진열장에 보기 좋게 진열하고, 부족한 물품을 체크하는 것입니다. 그 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던 날이었습니다. 딱 한 가지만 빼면 말이죠. 마트 문을 열기 한 시간 전쯤 저는 평소처럼 출근을 마쳤습니다. 마트가 영업을 시작하기 전, 주문한 상품들이 제대로 도착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대형마트이다 보니 주문량도 많았고, 확인해야 할 상품들도 많았습니다.

수십 개의 박스들이 대형마트 출입구 쪽에 쌓여요. 저와 동료들은 정신없이 박스포장을 뜯고, 주문수량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마트 바깥에서 누군가 “불이야!” 하고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마트 밖으로 대피하

기 위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화재 발생 시 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었지만, 막상 화재사고가 현실로 다가오니 급한 마음을 진정시키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앞서 대피하던 동료들이 무더기로 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출입구 쪽에 쌓여있던 박스들에 걸려 넘어진 것이었습니다.

무더기로 넘어진 동료들을 보고 있자니 ‘이젠 끝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 뿐인 대피로가 확 막힌 꼴이었으니까요. 바로 그때, 점장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 침착하고, 고개를 숙여 차례차례 나갑시다. 걱정 말아요. 아직 불길기 거세지 않아요!”

점장님은 출입구 쪽에 쌓여 있는 박스들을 치우며 동료들을 안정시키고 있었습니다. 점장님이 아니었다면 우리 모두는 어떻게 됐을지... 지금 생각해도 아찔합니다. 그 이후부터 저와 동료들은 박스들을 모두 정리한 후에 작업을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통로에 있는 물건이 얼마나 위험한지, 늘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SAFE STEP

“**통로에 물건을 두면 안됩니다**”



필리핀

Do not leave the valuables unattended.

두 너트 리브 더 밸류어블즈 언어텐데드



중국

过道上不能放置物品。

꺀도쌍뿌녕팡쯔우핀



태국

ห้ามวางของทิ้งไว้ตรงทางเดิน

함왕경팅와이프롱탕던



인도네시아

Jangan meninggalkan barang apapun disini

장안 므닝갈칸 바랑 아파퓰 디시니



몽골

Орц гарцыг хааж эд зүйлс тавихыг хориглоно

어르츠 가르치 허어즈 에드 주일스 타비히그 허리글룬



방글라데시

পথেরমধ্যে জিনিসরাখবেননা.

뽕탈 몰때 지닛 락벤나



우즈베키스탄

Ўтиш жойига буюмларни қўйиш таъқиқланади.

어트스 조이가 부유물라르느 커이스 타키클라나드



파키스탄

قیمتی سامان چھوڑ کر مت جاؤ.

낌띠 사만 초르깔 마 뜨 자오



스리랑카

ගමන් කරන පරේ භාන්ඩ නිශ්චිත වශයෙන්

가만 거러너 바레 판더 디안너 예바



네팔

प्यासेजमा सामान राख्न मनाही छ ।

바세즈마 사마느 라크너 머나히 처



미얀마

လျှောက်လမ်းမှာ ဝတ္တုဥစ္စာ ထားသွားလို့ မဖြစ်ပါဘူး

샤육란마 뽕시뽕 타뽕로 마핏빠우



캄보디아

មិនអាចដាក់អីវ៉ាន់នៅផ្លូវ រឺធ្វើ ដំណើរ រទានទេ។

먼 더악 어이완 너으 플러으 트워으 덤나으 반 떼



베트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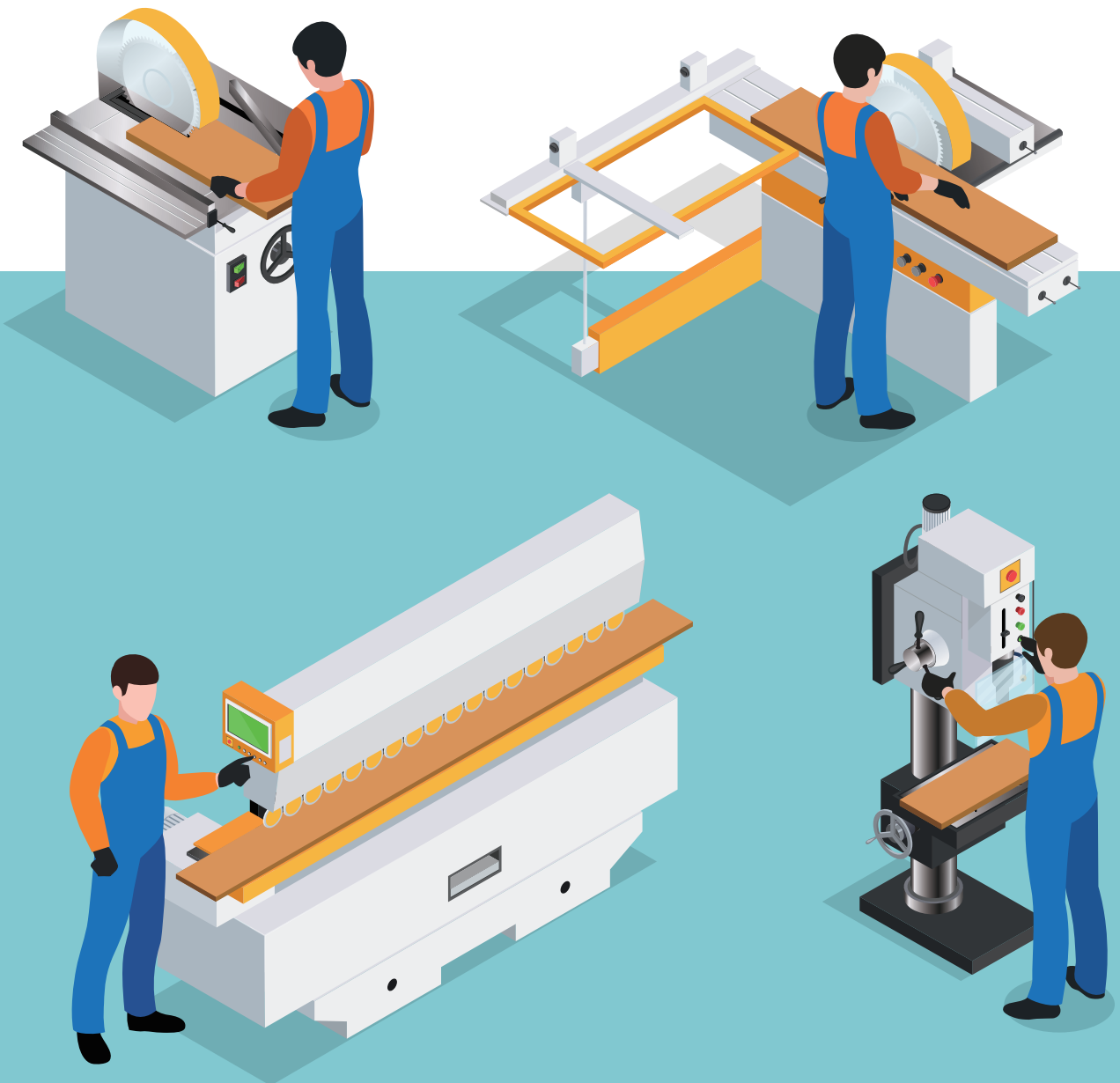
Không được để đồ ở giữa đường.

콩드억데도어즈어드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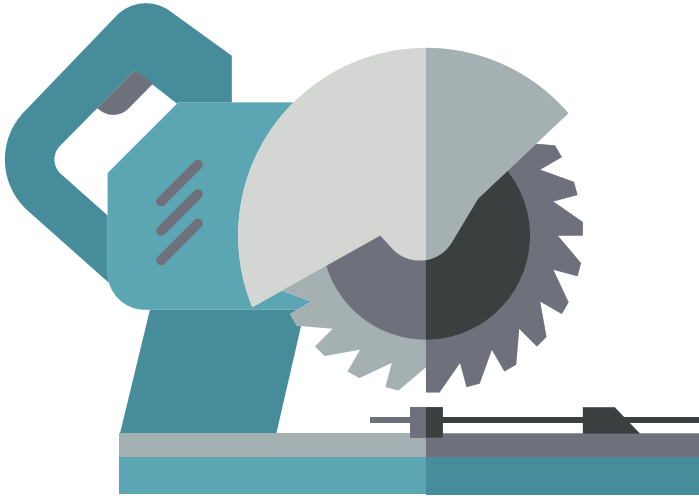
원목이 제품이 되기까지, 목재가공용 둥근톱

덩치가 큰 원목들이 일정한 규격의 제품으로 생산되기까지는 목재가공용 둥근톱이 큰 역할을 한다. 원목을 일정한 규격으로 자르고 커서 판재, 재목, 각목 등으로 쉽게 제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을 시, 이에 따른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글 편집실



등근톱에 의해 발생한
재해자 수



2011년	315명
2012년	231명
2013년	322명
2014년	106명
2015년	27명
2016년	58명
2017년	65명

편리함과 위험성을 함께 지닌 목재가공용 등근톱

등근톱기계는 전기모터를 이용해 목재를 절단하는 기계로서, 지름 300~400mm 강철 원판의 둘레에 톱니를 만들어 회전체에 부착시킨 후 고속으로 회전시켜 목재가공작업을 하는 설비이다. 일반적으로 목재가공용과 금속가공용으로 구별되는데, 그중 목재가공용은 제재용과 목공용으로 다시 나누어진다. 제재용은 말 그대로 제재품을 만들 때 사용하는 것으로, 테이블식 등근톱기계, 이동 테이블식 등근톱기계, 진자식 등근톱기계 등이 있다.

목공용은 제재품을 작게 절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계이다. 승강 등근톱기계, 테이블 경사 만능 등근톱기계, 립 쇼(rip saw), 갱립 쇼 등이 있다.

제재용이나 목공용 등근톱 모두 구조가 간단하고 용이하여 작업자가 원하는 너비의 목재를 연속적으로 자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등근톱의 축은 4,000~5,000rpm의 고속으로 회전

하고 있기 때문에 톱니에 접촉되거나 재료의 반발 등에 의한 위험성이 높은 기계이다.

다음에 소개하는 A씨의 사례 역시 등근톱 사용 도중, 반발에 의해 튕겨 날아온 각재에 흉부를 맞고 사망한 사고였다.

A씨는 목재를 가공하는 회사에 이제 막 취직한 새내기 사원이었다. 평소 남다른 열의를 가지고 있었던 A씨는 선배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연습 삼아 등근톱 기계를 작동시켰다. 목재에 표시된 절단선과 등근톱의 톱니바퀴만 잘 맞추면 작업에 실패할 염려는 없어 보였다. 그만큼 등근톱 기계는 단순해 보였던 것이다. A씨의 예상대로 등근톱 기계에 빨려 들어간 목재들은 깔끔하게 절단되어 나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두 번째 목재가 절단되는 순간, 갑자기 튀어 오른 목재의 일부가 A씨의 흉부를 가격하고 말았다. 아무도 없는 작업 공간 속 A씨는 심한 충격에 정신을 잃고 쓰러지면서 신체의 일부분이 등근톱에 끼여 사망으로 이어지고 말았다.

목재가공용 동근톱 작업 시 안전사고 예방대책

목재가공용 동근톱은 회전하는 톱날에 접촉 위험이 높아 반드시 방호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가공재의 반발에 의한 사고, 동력전달부 접촉에 의한 협착 사고, 분진 및 고소음에 의한 건강장해 위험도 도사리고 있다.
때문에 목재가공용 동근톱 사용 시에는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명심해야 한다.



동근톱기계는 비전문가 또는 미숙련자가 조작할 수 없도록 관리하고, 특히 점심시간 및 작업종료 시에는 주전원을 차단하여 관계자와 작동을 할 수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사전에 작업의 위험성 및 안전작업방법 등에 대한 특별안전교육을 16시간 이상 이수한 근로자만 작업할 수 있도록 조치하자.



작업 중 작업자의 신체가 위험한계에 접근할 수 없도록 방호장치를 설치하자. 방호장치는 가공 중인 목재가 튀어 오르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동력전달부에 설치한 방호덮개는 신체의 협착 사고를 막을 수 있다. 또한 가공 중인 목재가 벌어지지 않고 톱날에 끼이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의 분할날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근톱 사용 시, 몸에 밀착되는 작업복을 착용하자. 장신구와 반지 등은 빼고, 머리카락이 긴 경우에는 짧게 고정시켜서 장비에 끼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안전하다. 열상, 찰과상, 목재의 반발 및 기타 재료와의 부딪힘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호 패드 또는 두꺼운 가죽으로 된 가슴받이가 있는 앞치마 등을 착용해야 한다.



목재가 눈 또는 안면에 튀어 오를 경우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측면 보호대가 있는 보안경(또는 고글형 보안경)과 안면 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 또, 동근톱 사용 시 발생하는 소음은 청력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귀마개나 귀덮개를 착용해야 한다.



목분진 또는 화학 물질 등과 같은 호흡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경우, 적절한 보호등급의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 사업주는 근로자들이 작업에 필요한 올바른 호흡용 보호구를 제대로 밀착시켜 착용하였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작업장소에서 윤활유 등과 같은 유해 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작업자는 알레르기로 인한 피부염 발생 가능성이 있고, 금속 부스러기로 인한 피부 긁힘으로 더욱 악화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확인하고 보관 용기에 경고표시를 해야 한다.

작업 전 안전점검

목재가공용 둥근톱 작업 시 주요 위험요인 및 안전수칙

둥근톱의 크기는 용도도 다양하고 형식과 종류도 많지만 회전축에 톱을 장치하여 회전시키는 구조는 동일하다. 테이블의 목재가이드를 조정하여 작업자가 원하는 너비의 목재를 연속적으로 자를 수 있는 목재가공용 둥근톱! 하지만 편리한 만큼 다양한 위험요인이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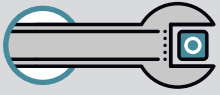


주요 유해·위험 요인

- 회전하는 톱날에 접촉 위험(톱날접촉예방장치 미설치 작업 시 톱날에 접촉, 절상 위험)
- 가공재의 반발로 목재가 날아올 위험
- 동력전달부 접촉에 의한 협착 위험
- 목분진 흡입 및 고소음으로 인한 건강장해 위험

작업 안전수칙

- 둥근톱기계의 고정상태가 견고한지 확인한다. (바닥 면과의 지지 및 톱날고정 상태 등)
- 둥근톱의 최대 원주 속도를 준수한다.
- 톱니에 말려들 위험이 있는 장갑은 착용하지 않는다.
- 반발 또는 가공 중 톱날 노출 우려가 있는 구부러진 목재는 켜지 않는다.
- 톱날에서 충분히 떨어진 곳을 잡는다. (단, 나무껍질 등 분리될 수 있는 부분을 잡지 않는다)
- 톱날이 정상적으로 회전하지 않을 때는 일단 가공물을 후퇴시킨다.
- 톱날 높이는 가공물 상부 면보다 보다 5mm 이상 올라오지 않게 조정한다.
- 옹이부분은 서서히 쪼갠다.
- 목재를 쪼개고 있는 동안에는 재료를 비틀지 않는다.
- 긴 목재나 폭이 큰 목재를 켄 경우에는 들뜸을 방지하기 위해 먼저 고정시키거나 보조 테이블을 설치한다.
- 보안경, 안전화 등 개인용 보호구를 착용한다.
- 소형의 목재 가공 시에는 푸시스틱 등 작업보조기구를 사용한다.
- 전원 차단 시 회전하는 톱날을 정지시키기 위해 톱날을 옆에서 눌러 정지시키지 않도록 한다.



목재가공용 동근톱 작업 시,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번호	점검 항목	점검결과	조치사항
1	톱날은 양호하고 조임 너트는 완전히 조였는가?		
2	분할날과 톱날 원주면과의 거리는 12mm이내가 되고 있는가?		
3	분할날의 톱 뒷날의 2/3이상을 덮고 있는가?		
4	가동식 또는 고정식 톱날접촉예방장치가 설치되어 있는가?		
5	동력전달부의 벨트, 풀리 등에 울, 덮개 등의 방호 조치가 되어 있는가?		
6	가공재 반발 방지를 위한 예방장치가 설치되었는가?		
7	톱니에 말려들 위험이 없는 장갑을 착용하였는가?		
8	소형의 목재 가공 시에는 푸시스틱 등 작업 보조기구를 사용하는가?		
9	동력차단 후 10초 이내에 톱날의 회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성능의 브레이크가 설치되어 있는가?		
10	전기배선, 외함접지, 누전차단기 등 감전 예방조치가 되어 있는가?		
11	톱날 교체 시 톱날 축의 회전에 의한 위험방지를 위한 축 고정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가?		
12	보안경, 방진마스크 및 청력보호구 등을 착용하는가?		

*본 점검항목은 참고용으로 사업장 특성에 맞도록 자체적인 점검항목을 추가하여 사용하세요.



그 여정이 바로 보상이다

by 스티브잡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여정을 시작하고 마무리합니다.

때때로 지난한 과정이 힘들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여정의 끝에는 늘 달디 단 결과가 기다리곤 합니다.

위험요소가 도사리는 현장에서 '안전수칙'이라는 여정을 잘 지키면 나와 가정의 행복이 지켜지는

것처럼, 숭고한 보상이란 우리 곁에 있는 사소한 것들을 지킬 때 가능해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안전의 참견

NO.6 여름철 고온작업 건강관리

-by 김양수

열정으로 뚝뚝 땀 흘린 열혈 청년 하태



뭔가 좀 나태해보였다.



건설현장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원래 그런 건가 싶긴 했지만



어쩐지 선배들의 모습이



하태의 열정엔 쉽표가 없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도중



하태의 얼굴을 본 반장님



오히려 칭찬처럼 들렸는데



그 순간



갑자기 어지러워졌고



쓰러지고 말았다.



얼마 후 병원에서 정신을 차린 하태.





그제야 이해를 한 하태.



아~ 그래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하태는 걱정해주는 반장님이 고마웠다.



그렇게 열사병 해프닝이 끝난 것 같았다.



안전병원

며칠 후, 현장에 복귀한 하태가



이러고 오기 전까진.



뭐 그랬다.



여름철 고온작업 시, 건강관리 하세요!

여름철, 반갑지 않은 손님 '폭염'은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열실신 등 다양한 건강장해의 위험 요소가 됩니다. 그중에서도 열사병은 신속한 치료가 없을 경우 사망률이 매우 높아 유의해야 하는데요, 열사병이란 체온조절기능의 장애로 현기증, 두통, 경련 등을 동반하고 심하면 체온이 41℃ 이상 상승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따라서 열사병 증세를 보이는 환자 발견 시 즉시 119에 신고하고, 기다리는 동안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우선, 환자를 시원한 장소로 옮깁니다. 이후, 환자의 옷을 시원한 물로 적시고 몸은 선풍기 등으로 쐬줍니다. 이때, 환자의 체온이 너무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의식이 없는 경우라면 음료를 마시도록 하는 행위는 일체 금지하세요!



제51회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

산재사망은 절반으로, 국민안전은 두 배로!

생명을 지키는 안전보건, 사람이 우선인 대한민국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 행사는 1968년 개최 이래 범국민 안전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하였고, 국내 안전보건분야 최고·최대 행사로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다. 특히 2018년은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산업재해 사망사고 절반줄이기 원년을 맞아 사회 각 주체의 책임을 촉구하고 범국민 안전의식 고취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안전보건 세미나, 우수사례 발표대회, 안전연극 등 다양한 행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

알아두세요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을 가장 스마트하게 즐기는 방법!

”

행사 전부터 현장까지 실시간 정보 제공

- 행사에 대한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확인 가능
- 나의 관심일정 체크를 통한 푸시알림 가능
- 전시장 지도 및 참가업체 현황 정보 제공

행사의 재미를 더할 수 있는 현장 이벤트 진행

App를 통해 행사장 내 QR코드를 촬영하고 퍼즐을 완성하면 소정의 기념품 제공

App 다운로드 방법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제51회 강조주간’을 검색하여 다운 받으세요!
(왼쪽에 있는 QR코드 스캔으로도 가능합니다.)



제51회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은 그간 산업 현장에서 재해예방을 위해 힘쓴 산재예방 유공자를 포상하고, 정부의 사망사고 감소 의지와 정책방향을 소개하는 주제영상 상영 및 안전실천 퍼포먼스 등이 진행 된다.



기념식 세부일정

• 일시 : 2018. 7. 2(월) 10:00~11:10, COEX 오디토리움(3층)

시간		내용
09:45 ~ 10:00	15'	식전공연
10:00 ~ 10:02	2'	대피영상 상영
10:02 ~ 10:07	5'	국민의례
10:07 ~ 10:12	5'	주제영상 상영
10:12 ~ 10:13	1'	개식선언
10:13 ~ 10:18	5'	기념사
10:18 ~ 10:38	20'	축 사
10:38 ~ 10:45	7'	유공자 안전보건활동 우수사례 영상 상영
10:45 ~ 11:00	15'	산재예방 유공자 포상
11:00 ~ 11:10	10'	안전실천 퍼포먼스
11:10	-	폐 회

국제안전보건전시회(KISS2018)

올해 36회를 맞이하는 국제안전보건전시회(KISS2018)는 7. 2(월)부터 ~ 7. 5(목) 까지 COEX C홀에서 열린다. 총 7개 분야로 구성된 전시장은 '보고, 참여하고, 느낄 수 있는' 참여형 공간으로 마련된다. 또한 안전보건공단은 "사망사고 절반줄이기 대책" 홍보관을 운영하여, 추락·충돌 등을 가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다.



7개 분야 전시 내용

- (사망사고예방존) 안전대, 안전망, 안전통로, 안전사다리, 전도방지대 등 추락사고 방지 제품
- (첨단안전산업존) 안전체험 프로그램, 교육 영상 및 소프트웨어 등
- (안전보건보호구존) 안전모, 안전화, 보안경, 보호복 등
- (공정안전관리존) 압력용기, 방폭전기기기, 가스누설경보기 등
- (방재산업존) 가설기자재, 소방 및 피난 장비 등
- (기타 산업안전존) 서비스산업 안전제품, 기타 안전보건 장비 등
- (공공서비스존) 공단, 안전·보건 유관기관 등

사망사고 절반줄이기 대책 홍보관

- ① 3대 사망사고 예방존
 - VR을 이용한 작업발판(비계작업) 및 타워크레인 사고 체험, 지게차 안전장치 체험, 질식사망 예방 급기팬 작동시연 등
- ② 고객응대노동자 보호 부스
 - 악성고객 대응 체험 및 대처방안 상담, 노동자 보호 매뉴얼 전시 등
- ③ 산재예방 자료존
 - 공단 산재예방 사업안내 및 산재예방 리플릿, 사망사고 절반줄이기 정책자료집 등 자료 전시

안전보건 세미나, 우수사례 발표대회 등

안전보건 세미나 및 우수사례 발표대회는 7. 2(월)부터 7. 6(금)까지 COEX 컨퍼런스룸 3층~4층 및 E홀에서 열린다. 세미나는 사망사고 절반줄이기, 새로운 건강 위협, 사회적 가치 실현 등 사회적 이슈 중심의 주제로 실시된다. 특히 공단은 사망 사고 감소를 위한 정책방향 제시 및 국제 트렌드 소개를 위해 7.2(월)에 「사망사고 절반줄이기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사망사고 절반줄이기 정책세미나

- 일시** : 2018. 7. 2(월) 13:30~17:30
장소 : COEX 컨퍼런스룸 401호
참석 : 사업주 및 안전보건관계자
 400명 내외
주제 : 사망사고 감소를 위한 정책방향
 제시 및 국제 트렌드
내용
-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정부 정책방향 (고용노동부)
 - 사망사고 절반줄이기 실행전략(안전 보건공단)
 - 국외의 사망사고예방 정책(Ho siong hin ; 호상힌, 싱가포르 인력부 산업안전보건국장)
 - 안전패러다임의 전환(저자 특강, Erik Hollnagel)
 - 국민참여 사고조사위원회 활동을 통한 사망사고 예방 시사점

안전보건 세미나 및 우수사례 발표대회 일정

	일시 및 장소	기관	주제
7.2 (월)	13:00~18:00	307호 한국안전학회	대형화확사고(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위한 방목기술
	13:30~17:30	317호 보건관리전문기관협의회	보건관리전문기관 우수사례 발표대회
	13:30~16:00	318호 육군본부	군 안전 세미나
	13:30~17:30	401호 공단 중대사고위험관리본부	사망사고 절반줄이기 정책세미나
7.3 (화)	09:00~12:30	318호 공단 중대사고위험관리본부	사망사고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활동 우수사례 발표대회
	09:00~12:00	E1-2홀 (사)대한산업보건협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보건관리 발전방안
	09:00~12:00	E3홀 한국안전교육강사협회	특성화고등학교 안전보건 사고예방 교안 발표회
	09:30~12:00	327호 공단 산업안전연구실/건설안전실	건설업 발주자 안전보건 책무 이행 강화 방안
	09:30~12:00	E4홀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도체 직업병 인정사례 등 분석과 대책
	10:00~12:00	317호 공단 전문기술실	국내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발전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세미나
	13:00~16:00	E3홀 공단 산업화학연구실	인화성 고체에 의한 화재폭발 사망사고 감소 방안
	13:30~17:00	318호 공단 직업건강실	감정노동 근로자 건강보호 우수사례 발표대회
	13:30~17:00	E1-2홀 공단 서비스안전실	서비스분야 안전보건활동 우수사례 발표대회
	14:00~17:00	317호 공단 국제협력센터	떨어짐 사망사고재해예방 국제세미나
	14:00~17:00	327호 공단 직업건강연구실/직업환경의학회	일하는 사람을 위한 사회적 가치 중심의 산업보건서비스 강화 방안
	14:00~17:00	403호 공단 경영기획실	안전보건의 사회적 가치 실현 방안
	14:00~18:00	E4홀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한국안전학회	사고성 사망재해 감소 대책의 올바른 방향 모색
	7.4 (수)	09:00~12:00	318호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
09:00~12:00		327호 공단 직업건강연구실/직업환경의학회	과로사(과로자살) 예방을 위한 정책 방향
09:00~12:00		E1홀 (사)한국건설안전학회	건설기계 안전확보를 통한 건설안전의 선진화 방안
09:00~12:00		E3-4홀 사단법인 건설안전지도기관 대표자협회	중소규모 건설현장 사망사고 감소를 위한 지도기관 역할
09:30~12:00		317호 공단 교육원	산재사망사고 감소를 위한 산업안전보건교육의 대응방안과 미래전략
10:00~12:00		403호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를 통한 사고예방 및 자율적 안전관리 체계 구축
10:00~12:00		E7홀 (사)한국가설협회	가설기자재 품질확보를 통한 건설공사 안전성 확보 방안
13:00~17:00		E2-4홀 대한산업안전협회	Risk Engineering 소개 및 적용
13:30~16:00		402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안전보건 토크콘서트
13:30~18:00		318호 공단 중대사고위험관리본부	모기업 공생협력 프로그램 우수사례 발표대회
7.5 (목)	14:00~17:00	317호 공단 교육원	제12회 안전보건교육 훈련 경진대회
	14:00~17:00	327호 공단 전문기술실	노후 화학설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화학공장 정비·보수 우수사례 발표대회
	14:00~18:00	403호 공단 교육미디어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수범사례 발표대회
	14:00~18:00	E1홀 공단 안전보건정책연구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사망사고 감소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포럼
	09:00~18:00	317호 공단 건설안전실/직업건강실	건설업 안전보건활동 우수사례 발표대회
	09:00~12:00	327호 (사)한국호흡보호구학회	건설 및 조선산업 현장에서의 호흡보호구 착용에 관한 세미나
	09:00~12:00	402호 한국산업보건학회	화학물질 정보공개와 노동자의 알 권리
	09:30~12:00	E3-4홀 공단 직업환경연구실/대한건설보건학회	건설업 사망사고 감소를 위한 보건학적 대응방안
	10:00~12:00	318호 공단 중대사고위험관리본부	최근 대형사망사고사례 공유 세미나
	10:00~12:00	E1홀 재단법인 한국비계기술원	건설현장 사고사례를 통한 가설기자재 안전확보 방안
7.6 (금)	10:00~12:00	E2홀 대한산업안전협회	<건설안전 아이디어를 부탁해- 시즌2> 아이디어 발표 세미나
	13:00~18:00	E2홀 (사)한국산업간호협회	2018년 산업간호 우수사례 발표대회
	13:30~17:00	327호 공단 직업건강실	근로자건강센터 우수사례 발표대회
	13:30~17:00	E3-4홀 공단 직업환경연구실	밀폐공간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첨단기술 활용방안
	14:00~18:00	318호 공단 중대사고위험관리본부	중소기업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발표대회
	14:00~17:00	402호 공단 안전문화홍보실	안전문화 확산 공모사업 우수사례 발표대회
	14:00~18:00	403호 공단 안전보건정책연구실	노동자의 노동환경과 산업안전보건 심포지움
	14:00~17:00	E1홀 공단 인증원	국내 보호구 제조업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국제시장 진출방안
	09:00~12:00	317호 공단 서비스안전실	MICE산업의 안전과 위기 관리
	09:00~12:00	308호 공단 교육미디어실	특수형태 종사노동자 등 실효성 있는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방안

국민참여 행사

안전과 문화와의 만남을 통해 안전보건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을 유도하고, 범국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안전특집 강연, 안전연극 등 다양한 국민참여 행사를 진행한다.



국민참여행사

• 안전특집 강연회 ‘세바시’(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사회 저명인사 및 연예인 등을 초빙하여 산업현장과 우리 사회의 안전보건 관련 소재 강연
7.3(화) 19:00, 컨퍼런스룸 401호



• 안전음악연극 <행복을 찾아서>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문화예술 콘텐츠를 안전보건에 접목하여 사업주 및 근로자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의식 제고
7.4(수) 16:30, 19:30, 컨퍼런스룸 401호



• 안전보건 UCC 공모전

안전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산업안전 및 생활안전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는 내용의 UCC 공모
7.6(금) 11:00, 컨퍼런스룸 402호 시상식



• 대학(원)생 산업안전 퀴즈매들

향후 산업현장의 예비 근로자인 전국 대학(원)생 대상 산업안전을 주제로 온·오프라인 퀴즈대회를 진행해 산업안전에 대한 관심과 의식을 고취
7.3(화) 14:00, 컨퍼런스룸 402호



지역별 행사

제51회 산업안전보건건강조주간 중앙행사 후 사망사고 감소를 위한 사회적 노력을 지속하고, 지역사회 안전문화 분위기 조성 및 확산을 위해 산재예방유공자 포상, 사망사고 절반 줄이기 세미나 등 지역 산업안전보건건강조주간 행사를 부산, 광주, 대구, 대전 등 지방 주요 도시에서 개최한다.



지역	일시 및 장소	내용
부산	7. 17(화) 10:30~17:00 부산 BEXCO	- 산재예방유공자 포상 - 사망사고 절반 줄이기 세미나(2개 분야) ※ (주제) 화학사고 사망재해 예방, 조선소 안전
광주	7. 9(월) 13:30~17:40 김대중 컨벤션센터	- 산재예방유공자 포상 - 사망사고 절반 줄이기 세미나(2개 분야) ※ (주제) 추락재해 예방, 충돌 및 질식재해 예방
대구	7. 12(목) 10:30~16:30 대구 EXCO	- 산재예방유공자 포상 - 사망사고 절반 줄이기 세미나(2개 분야) ※ (주제) 지게차, 추락(안전 비계·작업발판 사용) 사망재해 예방
대전	7. 12(목) 13:30~17:00 대전컨벤션센터(DCC)	- 산재예방유공자 포상 - 재해예방 세미나(1개 분야) ※ (주제) 산재 사망사고 예방 대책

함께 만드는 안전한 일터

공단이 추천하는 이 달의 교육미디어

01

「산재 사망사고 예방」 OPL자료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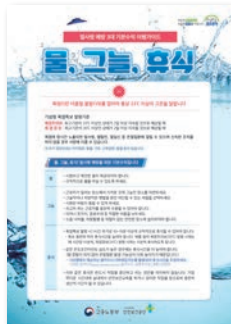
공단은 일하는 노동자의 안전을 책임지는 ‘산재사망사고 없는 안전한 일터 만들기 프로젝트’로 사망사고 근절을 위한 OPL자료를 개발하였다. 지난달에 이어 이번 달은 지자체 단체에서 주로 발생하는 발주공사 시 확인해야할 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관한 안전, 노후 하수관로 개·보수 작업 사망사고 예방에 대한 OPL 자료를 소개한다.



02

건강한 여름철 나기

매해 겪는 여름이라 낯설 것도 없지만 여름을 맞이할 때가 되면 ‘올 여름은 얼마나 더울까’하는 걱정이 든다. 본격적이 여름이 시작되기 전 장마철 감전 및 무너짐 예방, 그리고 폭염특보 시 안전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OPL)



▲ 여름철 식중독 예방 (OPL)

안전보건 자료 다운받기

공단 홈페이지 (<http://www.kosha.or.kr>) → 정보마당 → 안전보건자료실 → 전체 자료보기에서 다운받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 여름철 식중독 예방 (애니메이션)

03

증강현실(AR) 기법을 활용한 OPL

4차 산업혁명으로 미래산업이 변함에 따라 안전교육 또한 변화를 추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시대적 흐름에 의해 공단에서도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여 교육을 할 수 있는 미디어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 지난달에 이어 증강현실(AR) 기법을 활용하여 근로자 교육을 흥미를 일으키고 다양한 위험요소를 체크해 볼 수 있는 OPL 자료를 소개한다.

활용방법

- ① 구글 플레이스토어(Android)에서 '안전보건공단' 또는 '위기탈출 안전보건' 애플리케이션 설치 → ② 앱 접속화면에서 AR메뉴 클릭
- ③ 오른쪽 그림(OPL)을 스마트 폰에 비추기 → ④ 화면에 입체영상이 뜨면 교육자료를 확인

AR콘텐츠 개발 주제별 주요 구성 내용

구분	주제	주요 구성 내용
1	근골격계질환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골격계질환 발생 주요 동작 안내 •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스트레칭 GIF 이미지 포함
2	밀폐공간 작업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소결핍, 황화수소 중독에 의한 밀폐공간 질식사고 사례 구현 • 밀폐공간 사고예방을 위한 3·3·3 예방 수칙 등 포함



◀ 근골격계 질환예방



◀ 밀폐공간 작업안전



안전보건자료 이렇게 활용하세요

공단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필요한 안전보건자료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공단홈페이지를 통한 자료 검색하기]

→ 포털사이트에 '안전보건공단' 입력 또는 주소창에 <http://www.kosha.or.kr> 입력



통합검색



공단 홈페이지의 통합검색 서비스에서는 공단의 안전보건자료 및 안전보건정보(공단소식, 사업안내)를 직접 검색하여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검색방법 예시

'프레스 안전작업방법' 자료 필요 시 통합검색창에 '프레스' 입력 후 검색

e-실무길잡이



산업현장 자율안전보건체제 구축을 위한 업종별 안전보건 실무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29개 업종, 24개 직종의 공정별 안전작업방법, 법령정보, 재해사례 등 실무 정보 수록

공단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을 통해서 e-실무 길잡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http://guide.kosha.or.kr>)

안전보건자료실



안전보건자료실은 공단에서 발간되는 안전보건자료를 한 곳에 모아 놓은 자료창고입니다.

검색 및 단계별 클릭을 통해 원하는 자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자료를 잘 활용하면 **사업장이 안전해집니다.**



미디어배송 서비스 활용하기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내 미디어 현장배송 또는 미디어 홈페이지(<http://media.kosha.or.kr>)에서 미디어를 신청해서 받아보세요.

포스터, 표지(스티커), 리플릿(OPL) 등 사업장에 필요한 안전보건 미디어를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고, 현장에서 2~3일 이내에 택배로 받아볼 수 있는 고객 맞춤형 서비스입니다.



- ▶ 미디어 자료 비용 : 무료
- ▶ 미디어 배송 비용 : 신청자 부담(착불)



스마트폰을 통한 자료 검색하기

위기탈출 안전보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안전보건자료를 쉽고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Android), 앱스토어(iOS)에서 '안전보건공단' 또는 '위기탈출 안전보건' 애플리케이션 설치



[포스터]



[OPL]

오프라인(인쇄물) 자료 받아보기

공단에서 발간한 다양한 인쇄물, 시청각 자료 등을 산하기관 자료 전시실을 통해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산하기관 문의 : 1644-2275



잊히지 않는 끔찍한 기억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끔찍했던 기억, 돌이킬 수 없을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천재지변, 전쟁, 사고 등의 심각한 사건을 경험한 후, 그 사건에 대한 공포감으로 사건 이후에도 계속적인 고통을 느끼는 질환이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세월호 참사나 대구 지하철 화재는 물론이고 산업현장 속에서 겪게 되는 각종 추락, 절단 사고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일상생활은 물론 산업현장 곳곳에 산재하는 위험요소들이 심각한 사고로 이어지면 정신적으로 큰 장애가 발생하게 되는데, 특히 재난현장을 자주 목격하는 소방, 경찰 공무원의 경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유병률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산업재해에 따른 불안장애 노동자들 역시 여기서 자유롭지 못하다.

문제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치료가 쉽지 않다는 점에 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닌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치료이기 때문에 주변인들의 응원과 도움이 무엇보다 중요하는데, 이와 관련해 안전보건공단은 근로자건강센터 및 직업적트라우마 전문상담센터(대구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시범 운영 중)를 통해 산업재해를 겪거나 목격한 노동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상담치료를 진행한다.

이들 센터는 전문상담, 산재보험 제도 안내 등의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산업재해에 따른 노동자의 심리치유는 물론 고객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는 서비스업 종사자의 심리안정과 일상복귀를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정신건강은 육체건강만큼이나 아주 중요하다. 따라서 각종 트라우마로 인해 일상생활이나 업무활동에 큰 지장이 있다면 근로자건강센터나 직업적트라우마 전문상담센터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 근로자건강센터 이용법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kosha.or.kr) 메인 화면 중 왼쪽 하단에 위치한 '근로자건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Scene 1

라이브

전국에서 제일 바쁜 '홍일 지구대'에 근무하는 오양춘(배성우 분)은 어느 날 밤, 바닷가로 뛰어드는 술에 취한 남자를 발견한다. '대한민국 경찰'이라는 자부심 하나로 살아가는 화끈하고 거침없는 그는 함께 순찰을 돌던 선배에게 "걱정 말라"는 말과 함께 바닷가로 뛰어든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바닷가로 뛰어 들어간 그가 나오지 않자, 선배는 오양춘에게 큰 일이 생겼다고 생각하고, 그를 구하기 위해 바닷가로 들어간다. 하지만 몇 분 후, 술에 취한 남자를 구해 나온 오양춘은 자신을 구하기 위해 몸을 던졌던 선배의 죽음을 깨닫고 오열한다. 그의 첫 번째 트라우마가 시작된 것이다.

제작 tvN

방영 2018.03.10. ~ 2018.05.06

출연 정유미, 이광수, 배성우, 배종옥, 이순재 등



심각한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 그 감정에 매몰되어 쉽게 일상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트라우마' 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불리는 PTSD(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이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다룬 드라마를 통해 그 해결방안을 만나보자.

글 임기현 / 이미지 tvN <라이브>, MBC <검법남녀>, JTBC <그냥 사랑하는 사이> 캡처



Scene 2

그냥 사랑하는 사이

주인공 강두(이준호 분)는 붕괴사고에서 극적으로 살아남았다. 하지만 붕괴사고에 의한 충격은 여전히 생생하다. 이 때문에 반복적으로 악몽을 꾸고,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는 강두. 그는 늘 꿈속에서 붕괴사고의 현장을 다시 만나는 악몽을 거듭한다. 여주인공 문수(원진아 분) 역시 같은 아픔을 지닌 인물이다. 어릴 적, 강두와 같은 붕괴사고 현장에 발이 묶였던 그녀는 성인이 된 이후에도 시시때때로 그날의 공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살아남은 자의 고통과 슬픔, 그 지독한 상처는 이들에게 어떤 의미로 남았을까.

제작 JTBC
방영 2017.12.11. ~ 2018.01.30
출연 이준호, 원진아, 이기우, 나문희 등

Scene 3

검법남녀

모든 접촉은 흔적을 남긴다. 그래서 세상엔 완전 범죄란 없다. 그리고 여기, 완전 범죄를 파헤치는 주인공이 있다. 부검의 '백범(정재영 분)'이 그 주인공이다. 하지만 그에게 트라우마가 있다. 평범한 외과의사였던 그가 현재 부검의로 살아가는 것도 이 때문이다. 미상의 여성 사체를 부검하던 중 태아를 발견하게 된 백범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채, 과거 속 기억에 뒷걸음질 친다. 자신의 옛 애인에 대한 기억 때문이다. 그에게 어떤 트라우마가 산재해 있는 것일까. 그는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제작 MBC
방영 2018.05.14. ~ 방영중
출연 정재영, 정유미, 이이경, 박은석 등





[역사]
역사의 역사

책 읽기 딱 좋은!

여름은 그런 계절

천고마비의 계절이 독서의 계절인 시대는 갔다.
무더운 여름, 시원한 양동이에 두 발을 담근 채
허리춤에 낀 책 한 권이 있다면, 이보다 더 시원한
피서지가 또 있을까. 인정사정 봐주지 않는 무더위를
한 번에 날려주는 속 시원한 이달의 책을 만났다.

글 편집실 / 이미지 돌베개<역사의 역사>, 카시오페아<말 그릇>, 미니멈<오름오름>



[여행]
오름오름



[자기계발]
말 그릇

History

역사의 역사

저자: 유시민

2013년 정계 은퇴 이후 전업 작가로 살고 있다. 경제학을 공부했지만 학생 때부터 역사학, 철학, 문학에 더 관심이 많아 그동안 <어떻게 살 것인가>, <후불제 민주주의> 등 다수의 저서를 썼다.

2,500년에 걸친 인간의 역사. 그 속에 남은 역사가들의 시대를 추적하는 '역사 르포르타주' 되시겠다. 저자 유시민은 역사를 한마디로 정의한다거나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대신 역사가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데 집중한다. 각각의 역사서와 역사가들이 역사를 무엇이라 생각했는지 탐문하고, 긍정과 반문을 반복하며 질문을 확장해 나가는 방식이다.

위대한 역사가들이 우리에게 전하려고 했던 생각과 감정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역사 앞에서' 우리는 또 어떤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것일까.

나의 부리를 찾지 못해 방황하고 있는 중이라면, 역사가들이 전하는 생각과 철학 속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SELF-IMPROVEMENT

말 그릇

저자: 김윤나

코칭심리학자이자 기업 전문 강사. 한국코치협회 인증 전문코치 KPC이자 'THE연결' 대표로 그동안 SK, LG, 삼성 등 수많은 기업에서 커뮤니케이션 및 심리·관계 코칭을 담당하고 있다.

사람들은 저마다 말을 담는 그릇을 하나씩 지니고 살아간다. 말 그릇의 상태에 따라 말의 수준과 관계의 깊이는 천차만별로 달라진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재주가 뛰어난 사람을 부러워하지만, 곁에 두고 싶어 하는 사람은 결국 말에서 '마음이 느껴지는' 사람이다.

저자는 많은 말을 하지 않지만 꼭 필요한 말을 조리 있게 하는 사람, 적절한 때에 입을 열고 정확한 순간에 침묵할 줄 아는 사람에게 끌리게 되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말 그릇을 크고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방법을 소개한다.

단순히 말 잘하는 법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 그릇 자체를 짝짝 채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내가 가진 말 그릇의 깊이를 채우고 싶다면, <말 그릇>에 주목하자.



TRAVEL

오름오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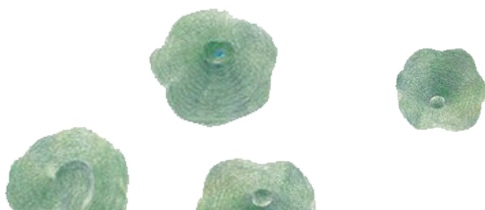
원작: 박선정

제주에서 1년만 살아보자 했는데, 벌써 여섯 번째 봄을 맞이하고 있다. 계절에 따라 시시각각 달라지는 오름 풍경에 취해 제주살이를 기록한 <제주에서 1년 살아보기>를 출간한 바 있다.

어떤 오름은 '숲길에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어떤 오름은 '전망이 너무 멋져서', 어떤 오름은 '굴 부리가 너무 신기해서', 어떤 오름은 '등성이 능선길이 너무 고와서' 좋다.

혼자 보기에는 너무 벅차서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나고, 온갖 머뭇의 핑계거리가 생겨나서 쉬이 내려오기가 힘든 제주도의 오름을 두고 저자는 '궁덕궁덕, 배시시, 으흐흐, 주체할 수 없이 심장이 요동치고 표정관리가 힘들어진다'고 표현한다.

올여름, 가슴을 뛰게 할 특별한 여행지를 찾고 있다면 찬란한 여름빛을 발산하는 제주도 오름은 어떨까. 국내 유일의 오름 트레킹 가이드북 <오름오름>이 당신의 발걸음을 이끌어 줄 것이다.



뭘 좀 아는, 트렌디한 리더

리더의 언어는 더 어려워졌다. 한마디 하면 꼰대라고 하지 않을까, 이래저래 눈치만 보다보니 며느리도 울고 갈 눈치백단이 될 지경이다. 눈치 안보고 할 말 다 하면서, 공감 받을 수 있는 리더가 될 수는 없을까? 꼰대와 쿨한 리더의 차이는 어쩌면 트렌드를 읽느냐 마느냐의 문제일 수도 있다.

글 현재라(컬럼니스트)

어느 날 저녁 만득이가 배가 고파 냉장고 문을 열어 보았다.
 혹시라도 먹을 것이 없나 싶어서였다.
 그러나 냉장고 안에는 아무 것도 없었다.
 실망감에 젖은 만득이.
 그런데 그 순간 뒤에서 귀신이 만득이를 부르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아도 배가 고파 짜증이 났던 만득이는
 하루 종일 자신을 쫓아다니며 귀찮게 했던 귀신을 인정사정
 보지 않고 냉장고에 가두었다.
 다음날 아침, 그 사실을 까맣게 잊은 만득이가 물을 마시려고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
 귀신이 하는 말!

'만득아! 나, 지금
떨~고~있~니?'



리더 아닌 자도 리더가 될 수 있다

90년대 중후반 대한민국 유머코드를 장악했던 만득이 시리즈에도 등장한 “나, 지금 떨고 있니”는 평균 시청률 50.8%를 기록했던 화제의 드라마 <모래시계>의 대사 중 하나이다. 지금은 시간이 흘러 추억의 드라마로 남았지만, 당시 트렌드를 안다는 리더들은 한번 쯤 해봤다는, 그야말로 ‘핫’했던 유행어였다. 유행어는 달라졌지만, 트렌드를 쫓는 리더들의 향연은 2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리더를 어떤 기업의 장(將)으로 구축시키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여성 코미디언 다섯 명의 성공 스토리가 이 ‘트렌드’의 한 축으로 눈여겨봐도 좋을 것 같다.

“
평균 연령 38.6세의 5인조 그룹 ‘셀럽파이브’가 그 주인공들이다.
 ”

송은이, 김신영, 안영미, 신봉선, 김영희로 구성된 이들은 예쁘고 나이 어린 아이돌 그룹들만 등장한다는 각종 프로그램에 ‘셀럽’이라는 명분으로 등장하더니 급기야는 최고의 전성기를 다시 누리고 있다. 상대적으로 노장인 이들이 등장할 수 있었던 데에는 소위 ‘축’이 좋은 김신영이 한 몫을 했다. 일본의 도미오카고교 댄스부 학생들의 춤과 노래를 뮤직비디오로 만들고 싶어, 무작정 해당 고등학교를 찾아갔던 것. 이들 만이 댄스부 학생들을 만난 그녀는 이렇게 물었다.


“
나는 한국의 코미디언인데, 너희 춤을 패러디해도 되겠니?
 ”

그것이 단순한 호기심에서 출발한 것일지라도 트렌드를 읽는 그녀의 감각은 결국 대한민국에 대박을 터트렸다. 트렌디한 감각이 리더에게 필요한 이유는, 셀럽파이브의 경우처럼 리더가 아닌 이들도 리더로 만들어주는 묘한 매력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셀럽파이브가 ‘요즘 돌아가는 현상’에 축을 세워 성공가도를 달린 것처럼, LG생활건강의 세제광고 역시 성공적인 ‘트렌드 읽기’의 한 부분이다. 총 1분 32초의 바이럴 광고영상에서 제품 자체를 설명하는 부분은 단 23초! 나머지는 제품 자체와는 상관없는 내용들로 가득 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광고는 거의 60만 조회 수를 기록했다. 이유는 간단했다. 요즘 트렌드인 ‘병맛(대한민국 인터넷 유행어로, 맥락이 없고 형편없으며 어이없음을 뜻함)’에 가까운 콘셉트로 요즘 세대의 니즈를 제대로 간파한 것이었다. 이것만 보더라도 트렌드를 아는 리더가 기업의 성공을 이끈다는 것은 두말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유머감각 기르는 넌센스 퀴즈!

정답을 옆서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화장실에서 금방 나온 사람을 가르키는 말 (힌트 : 본문에 등장한 도미오카고교 댄스부 학생들은 어느 나라 사람?)



안전보건공단은 근로복지공단과 산업재해 예방부터 보상까지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 만들기를 위한 정보를 소개합니다. 사업주 및 근로자들께서는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산재근로자 치료기간 중 업무공백은 사업주 대체인력지원금으로 해결하세요

“산재근로자는 충분한 요양치료,
사업주는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최대 360만 원)으로
업무공백 해소” 근로복지공단을 노크해 주세요.

산재근로자 치료기간 중 업무공백 때문에 신규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고, 해당 산재근로자를 원직장에 복귀시킨 소규모사업장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임금의 일부를 지원해 드립니다.



01

지원대상

산업재해 당시(해당 월말) 상시근로자 수 2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 가능합니다.

- (산재근로자) 산재장해인이나 요양승인기간이 2개월(60일) 이상인 산재근로자를 고용 단절 없이 원직장에 복귀시켜 30일 이상 고용 유지
- (대체인력) 산업재해 이후 신규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대체인력이 퇴사한 날(고용 종료일의 전날) 또는 산재근로자가 원직장에 복귀한 날의 전날 중 빠른 날을 기준] 30일 이상 고용 유지
- ※ 제외대상
 - 산재보험료가 체납된 사업주(지급전까지 체납된 산재보험료를 안납한 경우 예외)
 - 대체인력에 대하여 고용보험법 등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경우
 - 지원기간 동안 대체인력이 '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미취득자인 경우
 - 대체인력을 고용한 이유로 지원기간 동안 다른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해고에 한정)시킨 경우
 - 대체인력이 '건설일용직 및 불법외국인 근로자 등'인 경우

02

지원기간

대체인력 고용기간(최대 6개월까지)*

* 대체인력을 고용한 날부터 산재근로자가 원직장에 복귀한 날의 전날 또는 대체인력 퇴사한 날 중 빠른 날까지

03

지원금액

사업주가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액의 50% 범위내(월 60만 원 이내)

* 대체인력이 병가·일용근로 등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는 실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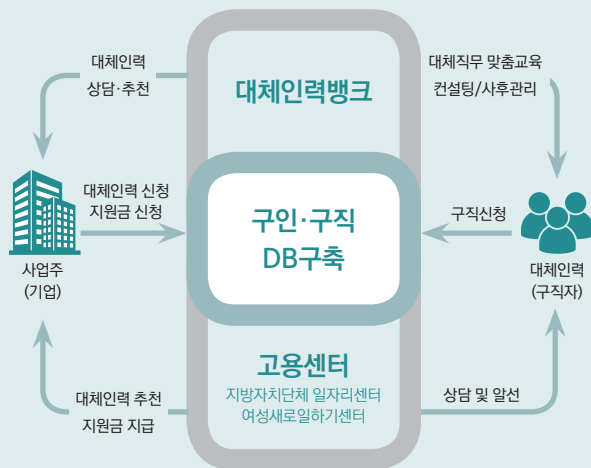
청구(방문·우편접수)

- 산재근로자가 원직장에 복귀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에 청구
- (청구) 산재근로자 고용을 유지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본사 포함) 또는 요양종결 의료기관 관할 지역본부(지사)

* 제출서류: 대체인력지원금 청구서, (산재근로자·대체인력) 임금 지급대장 사본(소득자별월별원천징수부등)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대표전화(1588-0075) 또는 해당 지역본부(지사) 재활보상부로 문의하시면 정성을 다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출산·육아휴직 및 시간선택제 전환(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산업재해 근로자의 업무공백을 메워줄 적합한 대체인력을 적시에 총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체인력뱅크 위탁 사업 실시**



(대체인력) 구인을 희망하는 기업 또는 구직을 원하는 산재노동자 취업알선

담당 지역	전화번호	팩스번호
수도권 전체	1577-0221	02-2006-9594
대구/경북	053-565-2894	053-323-2890
대전/충청	042-824-2130	042-824-2129
부산/경남	051-900-2893	051-203-2893
광주/호남	062-361-9436~7	062-514-6478
강원(원주)	033-745-6735	033-745-6736

※ [수도권] 대체인력뱅크-(주)커리어넷, [지방권] 대체인력뱅크-(주)스카우트 → 홈페이지(www.대체인력뱅크.com)

산재근로자 치료기간과 그후 30일간은 해고 안돼요!

「근로기준법」제23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해고하지 못함”(위반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안전보건공단 연구원, 산재사망사고 감소시킬 연구과제 수행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은 산재 사망사고 감소에 기여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올해 수행 연구는 △정책제도연구 16건 △산업안전연구 8건 △직업건강연구 15건 △직업환경연구 13건 △산업화학연구 22건 등 5개 분야 총 74건이다. 먼저, 급변하는 안전보건환경에 대응하고 신규 안전보건연구 수요 파악을 위해 '안전기술 향상 위한 ICT 융·복합연구'와 같은 미래지향적 연구들이 추진되고 있다. 해당 연구는 ICT 안전기술 개발 및 실제 적용 사례를 조사·연구하여 산업현장 안전보건 활동에 활용될 수 있는 실용화 방안을 모색한다.

이와 함께, 최근 태움문화로 사회적 이슈가 된 간호사들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간호사 직무스트레스 평가제도 마련에 관한 정책 연구'를 추진하는 등 노동자 건강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에 대응하고 산재예방 관련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도 수행 중이다.

안전보건공단 김장호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은 “급변하는 사회구조와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산업안전보건 연구의 필요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며, “공단은 현장 적용성을 강화한 산업안전보건 연구를 통해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가 감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교육원, 「오픈캠퍼스」 운영을 위한 MOU 체결



산업안전보건교육원(원장 신인재, 이하 교육원)과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단장 조홍래, 이하 울산대)은 5월 29일 '지역인재 양성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공공기관으로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측면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직무·현장실습 중심의 오픈캠퍼스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예비 산업인력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오픈캠퍼스는 지방이전 공공기관이 지역대학과 협력하여 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직무·현장실습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학점 인정 과정인 오픈캠퍼스 개설 △체험형 인턴십과 연계한 취업 지원 △안전의식 체화 교육 등의 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신인재 교육원장은 “이번 울산대와의 협약을 통해 교육원은 일회성, 일방향적 이벤트가 아닌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지역의 우수한 산업안전보건 전문인력 육성과 안전문화 확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전보건공단 광주지역본부, 이륜차 사고예방 캠페인 전개



안전보건공단 광주지역본부(본부장 박남규)는 6월 5일 서구 운천사거리에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주지방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이륜차 사고 예방 캠페인을 전개했다.

사망사고 위험이 높은 택배 및 킥, 음식 배달 종사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추진된 이날 캠페인에서는 이륜차 헬멧 및 안전조끼 배포 행사도 함께 진행돼 참석자들의 높은 호응을 받았다.

안전보건공단 교육원, 사회적 기업 제품 전시공간 '두빛나래' 개설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교육원(원장 신인재)은 울산사회적 경제지원센터(센터장 문흥석)와 손잡고 울산 소재 공단 교육원에 사회적기업 제품 상설 전시공간인 '두빛나래'를 조성했다. 두빛나래는 안전보건공단이 울산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최초로 사회적기업 제품 전시공간을 조성한 것으로, 앞으로 지역사회 기업의 제품 전시와 판로를 지원하게 된다. 현재는 울산지역 9개 사회적기업의 제품이 전시되어 있으며, 계절 및 시기별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전시품목은 주기적으로 교체된다. 안전보건공단 신인재 산업안전보건교육원장은 "연간 1만 2,000여명에 달하는 교육생들의 입소문을 통해 사회적기업 제품의 우수성이 널리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전보건공단 교육원,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정보전달' 교육과정 개설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교육원(원장 신인재)은 5월 23일부터 화학물질 취급 안전성 확보를 위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 및 정보전달' 교육과정을 신규 개설한다. 이번 교육은 신규 및 대체 화학물질 사용 증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직업병에 대응하고 기존 화학물질 관리체계를 개선하여 노동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교육내용은 △화학물질 분류표기준(GHS) 및 최근 동향 △유해위험성 분류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리 및 정보제공 등이며 집체 및 실습교육으로 진행된다. 교육대상은 화학물질을 제조·수입·유통·취급하는 사업장의 안전보건담당자 등이며, 교육신청은 교육원 홈페이지, 기타 문의는 교육원 고객센터 ☎1644-5656를 통해 가능하다.

안전보건공단, 건설현장 외국인노동자 사망사고 ZERO 위한 협업 구축



안전보건공단 경기서부지사(지사장 박현근)는 5월 23일 시흥시 배곧 신도시 대방 노블랜드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을 방문해 의사소통 문제로 사망사고 발생위험이 높은 외국인 노동자(중국인 약 50명)들에게 안전보건교육 시범강의를 실시하였다. 이날 시범강의는 이주여성(중국어)이 직접 모국어(중국어)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안전보건공단과 경기도, 시흥시가 손을 맞잡고 진행했다.

안전보건공단은 시범강의 실시 전에 중국 출신 다문화 이주여성 2명에게 건설현장 용어 및 작업공정 이해를 위한 현장실습교육을 추진하였으며, 경기도는 지자체 발주현장을 대상으로 교육수요의 붐을 조성하였다. 시흥시(정왕보건지소)에서는 그 간 강사로 양성된 다문화 이주여성을 지원하였다. 박현근 안전보건공단 경기서부지사장은 "이주여성 강사를 활용한 외국인 노동자 모국어 안전보건교육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근원적 안전 확보 및 일자리창출을 위한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이주여성 모국어 안전보건교육 강사 양성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전보건공단 비전과 전략

일하는 사람의 행복 파트너, 최고의 산업재해 예방 전문기관

- ▶ 수요중심 안전보건 대응능력 강화
- ▶ 자율 안전보건 관리 구축지원 강화
- ▶ 안전보건문화 확산
- ▶ 미래성장 역량강화

고객불편 신고센터

TEL (국번없이)1644-4544
 FAX 1644-4549
 WEB <http://www.kosha.or.kr/고객참여>

부정·비리신고센터 운영

우리 공단은 고객중심의 서비스 향상을 기하고자 부정·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이 불친절하고 권위적이거나 부정·비리에 관련된 행동을 하였을 때 아래 전화로 연락해주시면 검허한 마음으로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설치장소 안전보건공단 감사실
 주소 울산광역시 중구 중가로 400 (우편번호 44429)
 전화 052-245-8114
 팩스 052-703-0304



부패·비리 익명신고
 익명보장, IP 추적불가능
www.redwhistle.org



청렴한 KOSHA가
 안전한 일터를 만듭니다

2018년도 5월 신규 안전인증 현황

보호구

안전화

품명	인증번호	제조회사	형식, 모델	인증일자	
가족제안전화	18-AV2CR-0118	(주)지엔텍	Z-71	5/8/2018	
	18-AV2CR-0119	(주)지엔텍	Z-81	5/8/2018	
	18-AV4CR-0115	ELITE FOOTWEAR FACTORY	WS-851H	5/8/2018	
	18-AV4CR-0116	SHINWOON CHEMICAL PRODUCTS INDONESIA, PT	YAK-E600	5/8/2018	
	18-AV4CR-0117	SHINWOON CHEMICAL PRODUCTS INDONESIA, PT	YAK-E400	5/8/2018	
	18-AV2CR-0125	(주)빅투스	F75	5/9/2018	
	18-AV4CR-0120	SAMDUK VIET NAM CO., LTD	K2-85	5/9/2018	
	18-AV4CR-0121	SAMDUK VIET NAM CO., LTD	K2-35	5/9/2018	
	18-AV4CR-0122	SAMDUK VIET NAM CO., LTD	K2-26	5/9/2018	
	18-AV4CR-0123	Tianjin Leopard Co.,Ltd	TL-36N	5/9/2018	
	18-AV4CR-0124	Tianjin Leopard Co.,Ltd	SL-602	5/9/2018	
	18-AV2CR-0128	(주)지엔텍	L-53	5/10/2018	
	18-AV4CR-0126	PT. YOUNG DAN JAYA	PRO6-204	5/10/2018	
	18-AV4CR-0127	PT. YOUNG DAN JAYA	K-600N	5/10/2018	
	18-AV2CR-0129	(주)지엔텍	L-65	5/11/2018	
	18-AV2CR-0130	(주)지엔텍	L-55	5/11/2018	
	고무제안전화	18-AV2CR-0132	(주)에이로	ASB-003	5/28/2018
		18-AV2CR-0133	케이맥스 글로벌	KM-501	5/28/2018
18-AV4CR-0131		SHANDONG FENG DUN LEATHER SHOES CO., LTD	PS-502	5/28/2018	
18-AV4CR-0134		VINH AN SHOES CO., LTD	RF-60	5/28/2018	
18-AV4CR-0135		Zhejiang Haina Shoes Co., Ltd	TL-602	5/28/2018	
18-AV4CR-0136		Zhejiang Haina Shoes Co., Ltd	PS-480	5/28/2018	
18-AV4CR-0137		Zhejiang Haina Shoes Co., Ltd	PS-486	5/28/2018	
18-AV4CR-0138		Zhejiang Haina Shoes Co., Ltd	PS-680	5/28/2018	
18-AV4CR-0139		GAOMI LONGRUNSHENYU FOOTWEAR CO., LTD	PS-64	5/28/2018	
18-AV4CR-0140		PT. ELIM JAYA	LS-04E	5/28/2018	
18-AV4CR-0141		Tianjin Leopard Co.,Ltd	TL-61	5/28/2018	
18-AV4CR-0142		Tianjin Leopard Co.,Ltd	CU-24A	5/28/2018	
정전기안전화	18-AV2CR-0143	주식회사대신인더스	DS-내화학-05	5/30/2018	

방진마스크

품명	인증번호	제조회사	형식, 모델	인증일자
방진마스크	18-AV2CT-0036	(주)영송	YS 1050VDSF-06	5/18/2018
	18-AV2CT-0037	(주)영송	YS 1050VACF-06	5/18/2018
	18-AV2CT-0038	(주)영송	YS 1050VACF-07	5/18/2018
	18-AV2CT-0039	(주)세연투스정진(부산공정)	KA131V	5/18/2018

송기마스크

품명	인증번호	제조회사	형식, 모델	인증일자
송기마스크	18-AV2CV-0002	(주)경도상사	KD-509	5/18/2018
	18-AV2CV-0003	(주)경도상사	KD-509S	5/18/2018
	18-AV2CV-0004	(유)현대종합상사	일정유량형 ReX-902	5/18/2018

보호복

품명	인증번호	제조회사	형식, 모델	인증일자
화학물질용 보호복	18-AV2CX-0017	(주)주영세이프	맥스가드3	5/17/2018
	18-AV2CX-0018	(주)주영세이프	맥스가드4	5/17/2018
	18-AV2CX-0019	(주)주영세이프	맥스가드5	5/17/2018
	18-AV2CX-0020	(주)주영세이프	맥스가드6	5/17/2018
	18-AV2CX-0021	(주)우진크린텍	CPN-APRON	5/17/2018
	18-AV2CX-0022	(주)우진크린텍	CPN-ARM COVER	5/17/2018

방호장치

프레스

품명	인증번호	제조회사	형식, 모델	인증일자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18-AV6BI-0004	주식회사에스큐테크	HFT4500FIT-G	5/16/2018

양중기

품명	인증번호	제조회사	형식, 모델	인증일자
양중기용 과부하 방지장치	18-AV6BJ-0002	지엠테크주식회사	OPD	2018-05-02
	18-AV4BJ-0003	주식회사영림이엔지	YWENG-1000A	2018-05-16

파열판

품명	인증번호	제조회사	형식, 모델	인증일자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18-AV4BM-0009	BS&B SAFETY SYSTEMS LLC.(USA)	D	2018-05-28
	18-AV4BM-0010	BS&B SAFETY SYSTEMS LLC.(USA)	DV	2018-05-28
	18-AV4BM-0011	BS&B SAFETY SYSTEMS LLC.(USA)	DV	2018-05-28
	18-AV4BM-0012	BS&B SAFETY SYSTEMS LLC.(USA)	D	2018-05-28
	18-AV4BM-0013	BS&B SAFETY SYSTEMS LLC.(USA)	DV	2018-05-28
	18-AV4BM-0014	BS&B SAFETY SYSTEMS LLC.(USA)	D	2018-05-28
	18-AV4BM-0015	BS&B SAFETY SYSTEMS LLC.(USA)	D	2018-05-28
	18-AV4BM-0016	BS&B SAFETY SYSTEMS LLC.(USA)	D	2018-05-28
	18-AV4BM-0017	BS&B SAFETY SYSTEMS LLC.(USA)	RLS	2018-05-28
	18-AV4BM-0018	BS&B SAFETY SYSTEMS LLC.(USA)	MRB	2018-05-28
	18-AV4BM-0019	BS&B SAFETY SYSTEMS LLC.(USA)	GCR	2018-05-28
	18-AV4BM-0020	BS&B SAFETY SYSTEMS LLC.(USA)	GCR	2018-05-28
	18-AV4BM-0021	BS&B SAFETY SYSTEMS LLC.(USA)	CSI	2018-05-28
	18-AV4BM-0022	BS&B SAFETY SYSTEMS LLC.(USA)	S-90	2018-05-28
	18-AV4BM-0023	BS&B SAFETY SYSTEMS LLC.(USA)	RLS	2018-05-28
	18-AV4BM-0024	BS&B SAFETY SYSTEMS LLC.(USA)	CSI	2018-05-28
	18-AV4BM-0025	BS&B SAFETY SYSTEMS LLC.(USA)	RLS	2018-05-28
	18-AV4BM-0026	BS&B SAFETY SYSTEMS LLC.(USA)	CSI	2018-05-28
	18-AV4BM-0027	BS&B SAFETY SYSTEMS LLC.(USA)	S-90	2018-05-28
	18-AV4BM-0028	BS&B SAFETY SYSTEMS LLC.(USA)	RLS	2018-05-28
	18-AV4BM-0029	BS&B SAFETY SYSTEMS LLC.(USA)	MRB	2018-05-28
	18-AV4BM-0030	BS&B SAFETY SYSTEMS LLC.(USA)	GCR	2018-05-28
	18-AV4BM-0031	BS&B SAFETY SYSTEMS LLC.(USA)	CSI	2018-05-28
	18-AV4BM-0032	BS&B SAFETY SYSTEMS LLC.(USA)	CSI	2018-05-28
	18-AV4BM-0033	BS&B SAFETY SYSTEMS LLC.(USA)	S-90	2018-05-28
	18-AV4BM-0034	BS&B SAFETY SYSTEMS LLC.(USA)	RLS	2018-05-28
	18-AV4BM-0035	BS&B SAFETY SYSTEMS LLC.(USA)	S-90	2018-05-28
	18-AV4BM-0036	BS&B SAFETY SYSTEMS LLC.(USA)	S-90	2018-05-28
	18-AV4BM-0037	BS&B SAFETY SYSTEMS LLC.(USA)	RLS	2018-05-28
	18-AV4BM-0038	BS&B SAFETY SYSTEMS LLC.(USA)	S-90	2018-05-28

가설기자재

품명	인증번호	제조회사	형식, 모델	인증일자
가설기자재	18-AV2BP-0075	삼목에스프(주)	BS-CWB(N)2250	2018-05-11
	18-AV2BP-0081	산성컨트롤(주)	SP-38	2018-05-11
	18-AV2BP-0076	유풍금속공업	YP504	2018-05-11
	18-AV2BP-0071	호리코리아(주)	HK-H06S	2018-05-11
	18-AV2BP-0073	호리코리아(주)	HK-H12S	2018-05-11
	18-AV2BP-0072	호리코리아(주)	HK-H09S	2018-05-11
	18-AV2BP-0070	호리코리아(주)	HK-H03S	2018-05-11

방폭기기

*방폭기기 안전인증 현황은 지면이 한정된 관계로 수록하지 못하였으니

유해·위험 기계·기구 종합정보시스템(<http://miis.kosha.or.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제도 안내

중·소규모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안전·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의3, 동법 시행령 제19조의4부터 제19조의6까지,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18년 9월 1일 부터 ① 제조업 ② 임업 ③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업 ④ 환경 정화 및 복원업
⑤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의 중·소규모 사업장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Q 교육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교육신청 방법 집합교육

안전보건교육 포털(www.koshats.or.kr) 접속 ▶ 회원가입 ▶ 로그인
▶ 중간관리자 대상 교육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 교육 ▶ 교육신청
▶ 관할 구역 선택 ▶ 교육 과정 선택 ▶ 사업장 정보 입력 ▶ 확인

이러닝

안전보건교육 포털(www.koshats.or.kr) 접속 ▶ 산업안전보건교육원
(이러닝교육) ▶ 회원가입 ▶ 로그인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 검색
▶ 수강신청 ▶ 교육이수 ▶ 이수증 출력 및 집체교육시 제출

Q 선임대상과 선임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A ① 제조업 ② 임업 ③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업 ④ 환경 정화 및 복원업 ⑤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중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단계별로 시행됩니다.

- 상시근로자 30인~50인 미만 사업장은 2018. 9. 1일부터
- 상시근로자 20인~30인 미만 사업장은 2019. 9. 1일부터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미선임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Q 어떤 업무를 수행하나요?

A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 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 안전보건교육 진행 및 위험성평가
- 작업환경측정 및 개선 및 건강진단
-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조사, 산업재해 통계의 기록 및 유지
-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 등

Q 선임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고용노동부에 선임신고 의무는 없으며, 선임사실 및 업무수행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사업장 내에 구비·보존(3년간)하여야 합니다.

Q 어떤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A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에는 양성 교육과 보수교육이 있습니다.

양성교육 : 안전보건관리담당자로 선임되기 위해서는 공단에서 실시하는 양성교육(16시간)을 받아야 합니다.

보수교육 : 선임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직무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8시간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 30~50인 이상 사업장은 제도 시행일(18. 9. 1) 이후 매 2년 되는 날 기준

Q 언제, 어디에서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A 양성교육은 안전보건공단 전국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사업장 소재지 상관없이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대상 :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담당자로 선임하려는 자

* 사업장당 2명 이상 신청 가능, 단 '17년 시범교육 이수자는 제외

** '19년 선임대상인 20~30인 사업장의 경우 '18년 교육 이수 시 '19년 선임 가능

교육시간 및 방법 : 16시간

(이러닝 선행학습 5시간 + 실습·체험 교육 11시간)

교육내용 :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10시간), 산업안전보건법 주요내용(3시간), 업종별 재해사례 및 안전보건자료 활용방법(3시간) 등

준비물 : 본인 여부를 증명할 사진이 있는 신분증 및 이러닝 이수증 지참

수료 기준 : 집체교육 전 이러닝 교육을 수료*하고 집체 교육과정(11시간)의 90% 이상 출석

* 이러닝 교육은 학습진도 80% 이상 시 시험가능하며, 시험점수 60점 이상 득점해야 수료

* 양성교육 이수 시 해당 연도 관리감독자 교육시간 인정(1회 한함)

KOSHA 본부·산하기관

안전보건공단 본부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0	전화 1644-4544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0	전화 1644-4544
산업안전보건교육원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0	전화 1644-5656
산업안전보건인증원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0	전화 052-703-0752
서울지역본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2길 8, 7층	
대표 전화 02-6711-2800	교육 신청 전화 02-6711-2914	팩스 02-6711-2920
관할구역	서울특별시 강남구·서초구·성동구·광진구·송파구·강동구·영등포구·강서구·양천구·관악구·구로구·금천구 및 동작구	
서울북부지사	서울특별시 중구 칠재로 42 우리빌딩 7층	
대표 전화 02-3783-8300	교육 신청 전화 02-3783-8355	팩스 02-3783-8359
관할구역	서울특별시 중구·종로구·동대문구·용산구·마포구·서대문구·은평구·성북구·도봉구·강북구·종로구 및 노원구	
강원지사	강원도 춘천시 경춘로 2370 한국교직원공제회관 2층	
대표 전화 033-815-1004	교육 신청 전화 033-815-1058	팩스 033-243-8315
관할구역	강원도 춘천시·원주시·홍천군·인제군·화천군·양구군 및 횡성군, 경기도 가평군	
강원동부지사	강원도 강릉시 하슬라로 182 정관빌딩 3층	
대표 전화 033-820-2580	교육 신청 전화 033-820-2552	팩스 033-820-2591
관할구역	강원도 강릉시·속초시·동해시·태백시·삼척시·양양군·고성군·영월군·정선군 및 평창군	
부산지역본부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763번길 26	
대표 전화 051-520-0510	교육 신청 전화 051-520-0563	팩스 051-520-0569
관할구역	부산광역시	
부산북부출장소	부산광역시 사상구 개감로 37 부산산업용품유통상가 업무동 403호	
대표 전화 051-319-4380	교육 신청 전화 051-319-4380	팩스 051-319-4397
관할구역	부산광역시	
울산지사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8번길 5 3층	
대표 전화 052-226-0510	교육 신청 전화 052-226-0567	팩스 052-260-6997
관할구역	울산광역시	
경남지사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59	
대표 전화 055-269-0510	교육 신청 전화 055-269-0513	팩스 055-269-0590
관할구역	경상남도(경상남도 김해시·밀양시·양산시 제외)	
경남동부지사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남양산 2길 51 양산 노동합동청사 4층	
대표 전화 055-371-7500	교육 신청 전화 055-371-7502	팩스 053-421-8625
관할구역	경상남도 김해시·밀양시·양산시	
대구지역본부	대구광역시 중구 국제보상로 648 호수빌딩 20층	
대표 전화 053-609-0500	교육 신청 전화 053-609-0574	팩스 053-421-8625
관할구역	대구광역시 중구·동구·북구·수성구·달성군, 경상북도 영천시·경산시 및 청도군, 군위군	
대구서부지사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834 성안빌딩 5층	
대표 전화 053-650-6810	교육 신청 전화 053-650-6813	팩스 053-650-6820
관할구역	대구광역시 서구·남구·달서구·달성군, 경상북도 군위군·칠곡군(석적읍 중리·구미국가산업단지를 제외)·고령군 및 성주군	
경북동부지사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402	
대표 전화 054-271-2013	교육 신청 전화 054-271-2012	팩스 054-271-2019
관할구역	경상북도 포항시·경주시·영덕군·울릉군 및 울진군	
경북지사	경상북도 구미시 3공단 1로 312-23	
대표 전화 054-478-8000	교육 신청 전화 054-478-8063	팩스 054-453-0108
관할구역	경상북도 구미시·김천시·영주시·상주시·문경시·안동시·칠곡군 석적읍 중리·구미국가산업단지·봉화군·예천군·의성군·영양군 및 청송군	

중부지역본부	인천광역시 부평구 무네미로 478	
대표 전화 032-5100-500	교육 신청 전화 032-510-0587	팩스 032-581-8380
관할구역	인천광역시	
경기지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13층	
대표 전화 031-259-7149	교육 신청 전화 031-259-7173	팩스 031-259-7170
관할구역	경기도 수원시·용인시·화성시·평택시·오산시·안성시	
경기북부지사	경기도 의정부시 추동로 140 경기북부상공회의소 1층	
대표 전화 031-841-4900	교육 신청 전화 031-828-1942	팩스 031-878-1541
관할구역	경기도 의정부시·동두천시·구리시·남양주시·양주시·포천시·고양시·파주시·연천군 및 강원도 철원군	
경기서부지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 230 제이엘컨벤션웨딩홀 2층	
대표 전화 031-481-7599	교육 신청 전화 031-481-7553	팩스 031-414-3165
관할구역	경기도 광명시·안양시·과천시·의왕시·군포시·안산시 및 시흥시	
경기동부지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쇄골로 17번길 3 소곡회관 2층	
대표 전화 031-785-3300	교육 신청 전화 031-785-3359	팩스 031-785-3333
관할구역	경기도 성남시·하남시·이천시·광주시·여주시 및 양평군	
경기중부지사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송내대로 265번길 19 대신프라자 3층	
대표 전화 032-680-6500	교육 신청 전화 032-680-6551	팩스 032-681-6513
관할구역	경기도 부천시 및 김포시	
광주지역본부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82 광주무역회관빌딩 9층	
대표 전화 062-949-8700	교육 신청 전화 062-949-8712	팩스 062-944-8277
관할구역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나주시·화순군·곡성군·구례군·담양군·장성군·영광군 및 함평군	
전북지사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건산로 251 전주지방노동청 4층	
대표 전화 063-240-8500	교육 신청 전화 063-240-8523	팩스 063-240-8519
관할구역	전라북도 전주시·남원시·정읍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원주군·진안군 및 무주군	
전북서부지사	전라북도 군산시 자유로 482 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청사동 2층	
대표 전화 063-460-3600	교육 신청 전화 063-460-3614	팩스 063-460-3650
관할구역	전라북도 익산시·김제시·군산시·부안군 및 고창군	
전남동부지사	전라남도 여수시 무선중앙로 35	
대표 전화 061-689-4900	교육 신청 전화 061-689-4903	팩스 061-689-4990
관할구역	전라남도 여수시·순천시·광양시·고흥군 및 보성군	
전남지사	전라남도 무안군 삼합읍 후광대로 242 전남개발공사빌딩 7층	
대표 전화 061-288-8700	교육 신청 전화 061-288-8713	팩스 061-288-8778
관할구역	전라남도 목포시·무안군·영암군·강진군·완도군·해남군·장흥군·진도군 및 신안군	
제주지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설로 473 제주경제통상진흥원 4층	
대표 전화 064-797-7500	교육 신청 전화 064-797-7525	팩스 064-797-7518
관할구역	제주특별자치도	
대전지역본부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339번길 60 3층	
대표 전화 042-620-5600	교육 신청 전화 042-620-5671	팩스 042-633-1938
관할구역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공주시·논산시·계룡시·보령시·서산시·금산군·서천군·청양군·홍성군·부여군 및 태안군	
충북지사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경로 161번길 20 KT빌딩 3층	
대표 전화 043-230-7111	교육 신청 전화 043-230-7169	팩스 043-236-0371
관할구역	충청북도	
충남지사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3층	
대표 전화 041-570-3400	교육 신청 전화 041-570-3406	팩스 041-579-8906
관할구역	충청남도 천안시·아산시·당진시 및 예산군	

같이 만들어 가는
가치있는 세상

공익신고



보호

• 비밀보장, 신변보호, 불이익조치 금지, 책임감면

보상

-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최대 20억원의 보상금 지급
- 공익에 기여한 경우 최대 2억원의 포상금 지급
- 구조금(치료비, 이사비, 소송비용 등) 지원

상담

•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신고

- 홈페이지 1398.acrc.go.kr
- 부패·공익신고 앱
- 우편(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신고대상 : 5개 분야, 279개 법률 위반행위



건강

불량식품제조·판매
무면허 의료행위



안전

부실시공
소방시설 미설치



환경

폐수 무단방류
폐기물 불법 매립



소비자 이익

개인정보 무단 유출
허위·과장광고



공정경쟁

기업 간 담합
불법 산업기술 유출



국민권익위원회



월간 <안전보건>은 독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받아 더 나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을 보내주시는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전해드립니다.



지게차 전복사고, 늘 유의하겠습니다

이상갑 / 경기 광주시

칼럼 <중대재해사례>에 소개된 '전복된 지게차' 내용이 유익했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에도 지게차가 있는 만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익한 정보 고맙습니다

김수경 / 충남 천안시

칼럼 <모두의 건강주치의>에 소개된 '자외선 차단제 바로 알기' 코너가 유익했어요. 평소 저렴한 자외선 차단제만 구입했었는데, 종류별로 사용법이 나와 있어서 좋았습니다!

쉽고, 재미있는 안전보건에 대한 이야기 월간 <안전보건>이 전해드립니다



월간 <안전보건>은 사업장 안전보건 활동 지원을 위해 안전보건공단에서 발행하는 무료 정기간행물입니다.

월간 <안전보건> 무료로 받아보기

1.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를 찾아주세요.
2. 우측 하단의 '안전보건자료실'을 클릭합니다.
3. 좌측 하단의 '월간 안전보건'을 클릭 후 '구독 신청'을 클릭해 주세요.
(사업장등록번호로 검색하여 신청)
4. 매월 편하게 월간 <안전보건>을 받아보시면 됩니다.

안전보건에 관한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월간 <안전보건>은 여러 작업자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근무환경을 희망합니다.
월간 <안전보건>을 통해 듣고 싶은 이야기, 얻고 싶은 정보 등에 대한 의견을 적어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또 하나, 설문지를 복사해 직장 동료와 함께 작성하여 한꺼번에
팩스(052-703-0322)로 보내주세요. 많으면 많을수록 당첨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안전보건 2018. 07

독 자 엽 서

보내는 사람

이름 : _____
주소 : _____
전화 : _____

2018. 07

이용자는 해당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 대한 거부 권리가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안전보건 미디어 만족도 측정, 경품 추첨 및 우편 발송 등 서비스 제공에 관련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2. 수집·이용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직책, 회사명, 회사주소, 연락처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개인정보 수집 당해 연도(경과 시 일괄폐기)

◆ 상기 내용을 읽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동의 시 체크표시)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아 경품증정 등 서비스가 제공될 수 없습니다.



산업재해예방
받는 사람 안전보건공단

울산광역시 중구 중가로 400 (북정동) 본부 4층
교육미디어개발부 정기간행물 담당자 앞

설 문 엽 서

우편 또는 팩스로 독자엽서를 보내주세요

설문엽서로 미디어평가에 참여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추첨해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경품추첨

- 1회차 2018년 7월 첫째주
2회차 2018년 12월 첫째주
- 1회차 '18. 6. 22 이전 도착분
- 2회차 '18. 11. 23 이전 도착분

* 경품 내용과 추첨 일정은 공단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합니다.

* 당첨자는 경품추첨일 이후 SMS로
개별통보됩니다.

보내는 사람

이름 : _____
주소 : _____
전화 : _____

2018. 07

이용자는 해당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 대한 거부 권리가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안전보건 미디어 만족도 측정, 경품 추첨 및 우편 발송 등 서비스 제공에 관련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2. 수집·이용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직책, 회사명, 회사주소, 연락처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개인정보 수집 당해 연도(경과 시 일괄폐기)

◆ 상기 내용을 읽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동의 시 체크표시)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아 경품증정 등 서비스가 제공될 수 없습니다.



산업재해예방
받는 사람 안전보건공단

울산광역시 중구 중가로 400 (북정동) 본부 4층
교육미디어개발부 정기간행물 담당자 앞

독자 여러분이 읽고 싶은 월간 <안전보건>을 들려주세요!

월간 <안전보건>이 독자 여러분께 더 유익한 맞춤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독자 만족도 조사를 시행합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소중한 의견을 반영하여 더 좋은 안전보건자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Q1. 이번 호에서 유익했던 기사와 앞으로 다뤘으면 하는 내용 등 월간 <안전보건>을 읽고 난 소감이나 의견을 적어주세요. (마감 : 7월 10일 도착분까지)

Q2. 매년 공단에서는 다양한 안전보건 자료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귀사 또는 귀하는 어떤 자료가 필요하시나요? (형태 또는 주제를 자유롭게 기입해 주시면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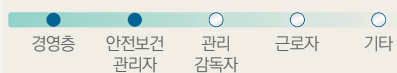
Q3. 75페이지에 기재된 년센스 퀴즈의 정답은 무엇일까요? (지난호 정답 : 이미지)

-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소중한 의견을 반영하여 더 좋은 안전보건자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본 설문지에 기입된 내용은 절대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 아래 설문양식을 작성하여 우편 또는 팩스(052-703-0322)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자료가 사업장 재해 예방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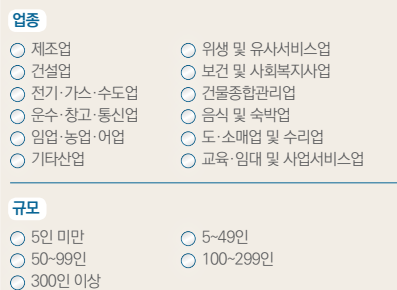
귀하는 회사에서 어떤 직책을 맡고 계십니까?



본 자료가 만족스러우셨습니까?



귀하께서 근무하는 회사에 대해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8년 07월호

2018년 6월 당첨자

김수경 충남 천안시
이상갑 경기 광주시

이용자는 해당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 대한 거부 권리가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안전보건 미디어 만족도 측정, 경품 추첨 및 우편 발송 등 서비스 제공에 관련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2. 수집·이용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직책, 회사명, 회사주소, 연락처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개인정보 수집 당해 연도 (경과 시 일괄폐기)

◆상기 내용을 읽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 시 체크표시)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시어 경품중첨 등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Fax 보내는 사람

이름 :

주소 :

전화 :

사내 게시판에 붙여서
활용하세요!

물에 빠진 사람 발견 시 응급처치법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했을 때 무작정 구조하려 한다면 익수자는 물론 구조하는 사람까지 위험해 질 수 있다.
물에 빠진 사람은 심한 공포에 사로잡혀 아무 것이나 손에 잡히는 대로 붙잡으려하기 때문이다.
물에 빠진 사람 발견 시, 올바른 구조법과 응급처치법을 알아보자.



❶ 물에 빠진 사람 발견 즉시, 주변에 알리고 119에 신고한다. 무턱대고 들어가기 보다는 부력이 있는 튜브, 아이스박스, 페트병 등을 던져준 후 밧줄이나 막대를 이용해서 구조한다.



❷ 익수자를 구조하기 위해 입수한 경우에는 반드시 익수자 뒤로 접근하여 겨드랑이를 잡고 물 밖으로 나온다.



❸ 익수자가 의식이 있는 경우, 호흡의 상태를 확인하고 체온 유지를 위해 젖은 옷을 벗긴 다음 담요 등으로 몸을 감싸준다. 편안하게 누운 상태에서 얼굴을 한 쪽으로 돌려 기도를 확보해준다.

*팔, 다리가 처져 있다면 목뼈 손상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움직임을 제한시킨 후 전문응급구조대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익수자 본인이 괜찮다고 느껴더라도 일단 물에 빠졌었다면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



❹ 의식이 없고 숨을 쉬지 않는 경우, 심폐소생술을 실시한다.

*의식이 없는 환자의 배를 눌러 물을 빼려는 시도는 오히려 심폐소생술을 지연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하자.

월간 「안전보건」에 안전한 사업장 이야기를 보내주세요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남다른 철학을 가지고 계신
사업주 및 안전·보건 관리자,
안전문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안전수칙을 잘 지키는
근로자를 월간지에 소개해드립니다.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가
안전보건의 주인공입니다.

소재

- 사업장 환경을 개선하여 안전·보건 재해율을 줄여들게 한 노하우
- 우리 회사 안전문화를 이끄는 사업주, 안전·보건관리자 또는 근로자 소개
- 안전보건공단과 함께하여 사업장 안전·보건에 변화를 준 사연
 -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교육을 통해 사업장 분위기가 개선된 사례
 - 현장미디어 배송서비스를 통해 사업장에 자료를 활용하는 사례
 - 위험성평가, 클린사업, 인증 및 검사 서비스를 받고 뿌듯한 경험 소개
- 위기상황에 적절한 대응 및 응급조치 경험
- 안전의 소중함을 일깨워준 사연

방법

분 량 A4 1장 이내

보내주실 곳 eoqkr@kosha.or.kr 또는 울산시 중구 종가로 400
교육미디어실 월간 안전보건 담당자 앞

선 정 절 차 내부 협의를 통해 선정된 원고는 사전 연락 후
취재 일정을 조율합니다.

※ 업체 광고 및 홍보성 내용, 또는 공단 사업에 악의적인 사연은
배제됨을 알려드립니다.

월간 「안전보건」 매거진은 매호 17,000부를 제작하여 전국 사업장 및 안전·
보건 관련 유관기관에 배포되고 있으며,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도 지속적으
로 게재하고 있습니다.

청렴^한 세상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집 중 신 고 기 간

기간

2018. 5. 1. ~ 7. 31.

신고방법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www.acrc.go.kr)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NH농협생명빌딩(동관) 1층 「부정부패신고센터」

: (044) 200-7972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신고” 앱

상담안내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



국민권익위원회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

The 51st Safety & Health Week

2018. 7. 2 (월) - 7. 6 (금) | coex

생명을 지키는 안전보건, 사람이 우선인 대한민국

